

한국어판  
제1권

2017년 봄

# 치빌타 카톨릭카

## LA CIVILTÀ CATTOLICA

『치빌타 카톨릭카』의 한국어판을 발간하면서  
『치빌타 카톨릭카』, 역사와 함께 걸어온  
교양지

“용기와 예언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교종  
프란치스코와 예수회 제36차 총회에 참석한  
예수회원들 간의 대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착한 사마리아인 교회:  
자비의 해를 마감하며

브라질: 한 시대의 종말

종교, 테러리즘, 전쟁

부부와 시대적 도전

스웨덴 방문을 앞둔 교종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한국어판  
제1권

2017년 봄

# 치빌타 카톨리카

LA CIVILTÀ  
CATTOLICA





# 제1권 1·2호 합본호 목차

## 1호

---

6 **[발간사]**

『치빌타 카톨리카』의 한국어판을 발간하면서  
— 정제천 요한 SJ

8 **[축사]**

『치빌타 카톨리카』, 역사와 함께 걸어온 교양지  
—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양숙자 수산나 옮김

14 **“용기와 예언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교종 프란치스코와 예수회 제36차 총회에 참석한 예수회원들 간의 대화  
— 이근상 시몬 SJ 옮김

3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착한 사마리아인 교회: 자비의 해를 마감하며**

— 산티아고 마드리갈 SJ, 김희자 사베리아 FSP 옮김

46 **브라질: 한 시대의 종말**

— 피에르 드 샤랑트네 SJ, 심애정 켄마 FSP 옮김

## 2호

---

56 **종교, 테러리즘, 전쟁**

— 피에르 드 샤랑트네 SJ, 임숙희 레지나 옮김

66 **부부와 시대적 도전**

— 조반니 쿠치 SJ, 이정주 옮김

84 **스웨덴 사목방문을 앞둔 교종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 올프 온손 SJ, 최현순 데레사 옮김



[발간사] 『치빌타 카톨리카』의 한국어판을 발간하면서

[축사] 『치빌타 카톨리카』, 역사와 함께 걸어온 교양지

“용기와 예언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교종 프란치스코와 예수회 제36차 총회에 참석한  
예수회원들 간의 대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착한 사마리아인 교회  
자비의 해를 마감하며

브라질: 한 시대의 종말

## 『치빌타 카톨리카』의 한국어판을 발간하면서

한국의 천주교회가 “로마 교회보다 더 로마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와 같은 외래 종교와 가르침을 수용할 때에 이것들을 선불리 우리 식으로 변형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존중하면서 서서히 우리 것으로 삼아 왔습니다. 이처럼 본래의 모습에 충실하려는 태도가 순교의 역사를 가능케 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질문은 로마 교회를 모두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구미에 맞게 일부만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톨릭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성경과 성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당대 및 직제자대에 완성이 되어 정경으로 공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교리’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이 ‘믿을 교리’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금 여기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이 당대의 문화 안에서 당대의 언어로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구도 여정이 성전, 곧 거룩한 전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전례는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역대 교종의 사회적 가르침들 역시 성전입니다. 최근 들어 몇몇 교구에서는 예비자 교리에서 사회 교리가 빠져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예수님은 성경으로 완결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피조물을 보살피시는 역사의 하느님,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느님도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외눈박이 신세를 면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온전히 알아보게 됩니다.

『치빌타 카톨리카Civiltà Cattolica』(가톨릭 문명)는 유럽 사회가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회 분열로 여기저기서 신음하던 1850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가톨릭 문명을 지키고자 가톨릭 지성인들의 의식을 모으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제1,2차 세계 대전 동안에도 끊이지 않고 발행되었고 특히 오늘의 세상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탐구하는 구도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역사의 하느님을 찾아 왔습니다.

『치빌타』는 지금까지 이태리어로 발행되었는데, 2017년 1월부터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판도 함께 발행됩니다. 통권 4,000호가 발행되는 2017년 2월 첫 토요일에는 교종께 네 개의 언어로 『치빌타』를 헌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한국어판도 함께 헌정할 것입니다. 한국어판은 2017년 1월부터 매월 3개의 아티클을 번역하여 예수회 한국관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e-Book 형태로 무료 제공됩니다. 또한 3개월에 한 번 한정본을 인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치빌타』 한국어판 간행을 계기로 하여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또한 가톨릭 문명 건설에 이바지할 지성인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한국어판의 출간은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님의 제안을 듣고 그동안 가능성을 모색해 오다가 마침내 예수회 36차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등대지기가 되어 앞길을 밝혀 주신 김희중 대주교님과 편집장 스페타로 신부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번역 작업에 함께해 주시는 번역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3일 예수회 성명 축일에

한국어판 편집인 정제천 신부 드림



## 『치빌타 카톨리카』, 역사와 함께 걸어온 교양지

『치빌타 카톨리카』(이하 『치빌타』)는 1850년에 창간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간행되어 오는 동안 본지의 사명인 ‘소통comunicazione’은 그 형식뿐만 아니라 의미 자체도 변화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새로운 전자 매체로 특징되는 이 시대에서 ‘소통’에 담긴 ‘소식 전달’의 의미는 계속 작아지는 반면 ‘증거’와 ‘나눔’의 의미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지적, 도덕적, 영적 체험에 관한 깊이 있는 나눔을 지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적인 책임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때 이미 그들은 자기 자신,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희망, 자신의 이상을 나눕니다.”(베네딕토 16세, 제45차 국제사회커뮤니케이션대회, 2011년 6월 5일) 이런 맥락에서 정보기술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기초가 되는 가치를 ‘증거’하도록 돕습니다.

『치빌타』는 이 시대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생활에 접목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지적 체험을 독자들과 항상 나누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진지하고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엘리트나 전문지식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맞추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지가 담고 있는 성찰을 단지 가톨릭 신자들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진지하게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즉, 본지의 독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지니고 신뢰할 수 있는 교양 자료를 얻고자 하는 바람을 지닌 모든 이들입니다. 이런 의도는 본지의 유전자 코드인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명에 기초합니다. 즉, 열린 자세로 존경심을 가지고 충만하고 친밀한 대화를 해 나가면서 교회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치빌타』의 필진은 문화 교양지가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용기 있게 진실을 알리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에 본지가 지니는 의미와 흥미, 유용성은 더욱더 커진다고 확신합니다. 창간 초기인 19세기와 두 번의

세계 대전 당시에 여러 문화 교양지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교양지들은 다양한 가치와 사상이 생동감 있고 격렬하게 만나고 충돌하고 교류되는 문화의 장이었습니다. 『치빌타』는 이 역할을 한시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교양지라는 뜻의 이탈리아 단어 ‘rivista’는 ‘다시 보다rivedere’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교양지가 현실을 대면하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교양지는 커다란 호흡으로 그려 본 미래를 마음에 담고 문화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때에만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본지는 특정 이념을 선포하거나 선전하는 것을 분명히 피하지만 살아 있는 비판 의식을 지니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활동에 영감을 불어넣고 감수성을 살려 내는 새로운 관점과 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합니다. 『치빌타』를 읽는 것은 마치 하나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1851년도의 필진이 말하였습니다. 즉, 그 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저런 질문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지의 핵심 정체성은 단순히 객관적인 양질의 분석과 독창적 연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감성과 이성을 향해서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

1886년 2월 12일 선포된 교종 비오 9세의 교서 「최고의 심각성Gravissimum Supremi」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창간부터 본지는 성청(교황청)과 특별한 공조를 통하여 문화적 관점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이후 줄곧 본지는 가톨릭교회, 특히 보편교회를 위한 교종의 사명에 겸손하게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2013년 6월 14일 『치빌타』의 필진 공동체에서 본지의 “본질적 특징”은 “교종과 사도좌와 (본지가) 맺은 특별한 관계”이며 그런 의미에서 『치빌타』는 “이 분야에서 유일한” 형태의 교양지라고 말했습니다.

『치빌타』가 교회에 바치는 고유한 공헌은 필진이 모두 예수회원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본지는 집필 활동을 하는 예수회원들이 삶으로 증명된 관점을 교회에 봉헌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즉, 이 예수회원들이 현실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교회에 제시합니다. 예수회 필진의 보물은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의

영성입니다. 이는 인간을 깊이 존중하며 실제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성으로 세상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찾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영성을 통해서 수많은 성인들이 탄생했고, 지식인들과 과학자들, 교육자들이 육성되었습니다. 이 영성의 근본적인 통찰은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 이냐시오가 남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찾기”라는 선언입니다.

『치빌타』가 교회를 충실히 섬긴다는 의미는 역대 교종들이 예수회 전체에 요청한 사명에 응답하는 것이고, 특히 프란치스코 교종의 요구에 답하는 것입니다. 교종 선출 후 삼 개월 만에 가진 본지 필진과의 회견에서 전임 교종이 재확인했던 본지의 사명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의미를 풍요롭게 하시고 필진에게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교종은 이 사명을 대화, 식별, 최전선이라는 세 가지 중요 단어를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창간 초기인 19세기에 『치빌타』의 성격은 당대 이미지처럼 전반적으로 전투적이고 논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강한 성향은 현시대의 위선을 단죄하는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대신에 본지의 기본 과제가 “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즉,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종이 지닌 열린 대화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이 무엇인가 유익한 대화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 기초합니다.

교종에 따르면, 이 대화는 “이 시대의 기대와 희망, 기쁨과 슬픔을 모아서 표현하며 복음의 빛에 비추어 현실을 읽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오늘날 제기되는 중요한 영적 질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생동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느님과 세상 중에서 양자택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이 충만한 완성에 이르도록 세상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하느님을 뵈고 만나기 위해서는 식별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문화의 현장에서 하느님의 영의 현존을 찾는 식별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영적 맥락과 인간 내면의 심오한 긴장과 갈망, 그리고 일상의 사건들 안에서 이미 심겨진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내어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술, 과학,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지식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 활동은 바로 이런 식별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교종은 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의 경계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갈등을 감내하면서 힘겨운 변화와 전환을 감행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종 베네딕토 16세께서 바오로 6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회원들에게 하신 연설이 오늘 (『치빌타』 필진) 여러분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모든 곳, 특히 더 어렵고 더 앞서가는 분야, 이념들의 교차로, 전쟁 참호와 같은 사회상, 인간의 급박한 요구와 복음의 영원한 메시지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는 바로 그 곳에 예수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고 최전방의 경계에 설 수 있는 능력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피하려는 유혹은 “최전선을 후방의 가정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최전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최전선을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조금 색칠을 하고 길들여 버리면 안 됩니다.”

대화, 식별, 최전선의 자세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요구와 그들의 다양한 표현 형식, 그리고 그들의 사회생활을 존중하며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본지가 성심성의껏 다뤘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지내면서, 공의회 정신에 의해 형성된 본지의 근간이 바로 이 자세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만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공의회가 제시한 시대의 징표를 찾고 복음의 빛에 비추어 징표를 해석하는 교회의 영구적인 의무를 본지의 의무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환경에 문을 여는 자세의 중요성이 오늘날 훨씬 더 강조됩니다. 문화 교양지가 단지 한 국가만을 대변하는 경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수용하고 분석하려면 광대하고 다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부터 본지의 필진도 여러 국가와 대륙에서 온 다양한 예수회원들을 포함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빌타』는 계속 국제적 면모를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지를 다양한 언어로 발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프랑스어판과 스페인어판, 영어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치빌타』 한국어판을 시작하겠다는 예수회

한국관구장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독자들을 만남으로써 여러 나라와 문화의 요청들이 본지의 핵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언어적 측면이 이탈리아 교양지라는 기존의 본지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오 9세가 「최고의 심각성 Gravissimum supremi」에서 앞선 필진에게 전달한 “모든 나라에 넓게 뿌려지고 퍼지라”는 요구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1850년 시작부터 본지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창간호는 4,200부나 인쇄되었습니다. 덕분에 일곱 번이나 다시 인쇄했습니다. 4년 후에는 발행 부수가 13,000부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런 대규모 출판은 매우 특별한 성과였습니다. 이 대규모 발간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수작업 인쇄 방식을 폐기하고 영국에서 고속 인쇄기를 구입해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행 부수는 본지의 내용이 열린 관점을 지니고 있고 국제적인 토대 위에서 최대로 배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빌타』는 이탈리아가 아직 통일되기 전에 이미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국가 교황청 대사들에게 외교 행낭을 통해서 본지가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은 본지가 근본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치빌타』는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 사이의 경계와 같은 어려운 입장에서서 고품격 문화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사명과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제 접근이나 형식 선택은 선대 필진이 세웠던 『치빌타』의 본래 계획에 따릅니다. 즉, 본지는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지적 교양지’입니다. 정치, 역사, 문학, 심리학, 영화, 경제학, 철학, 신학, 과학 등의 주제에 관한 광범위한 문화적 접근은 오늘 이 시대의 특성과 잘 부합합니다. 근대 생활의 복잡성과 분열상은 수많은 지식의 조각들을 이해하고 다시 배열해야 하는 특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노력은 1850년 창간호에 실린 대표의 글에서 설명된 ‘보편성 cattolicità’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본지를 다양한 형태의 글들로 구성하지 않는다면 『치빌타』는 보편적(가톨릭) 내지 세계적일 수 없다.” 다루는 소재의 다양성과 광범위함 덕분에 본지의 독자들은

현실의 많은 논쟁 주제들과 친숙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지에 실리는 분석과 성찰은 너무 복잡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정확하면서 통합적이기 때문에 독자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요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본지는 기존의 문화적 성찰이나 견해를 따르거나 다시 언급할 의도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예상하고, 경향성과 현상을 분석하고, 영향력을 전망함으로써 독자들이 깨어서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네딕토 16세가 2006년 2월에 본지 필진에 말씀하신 부탁에 응하고자 합니다. “『치빌타』가 자신의 본성과 과제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시대의 징표를 바르게 읽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본지 작업의 성과는 “집필자 학술공동체”라고 불리는 단체의 열매입니다. 『치빌타』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표현하고 나눕니다. 본 필진이나 외부기고 예수회원이 작성한 모든 원고는 발행 전에 다른 회원들이 검토합니다. 즉, 모든 원고는 예수회원들 사이의 긴밀한 대화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오 13세가 「지혜로운 자문Sapienti consilio」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필진은 “삶과 공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본지의 대표 역시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동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대표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

『치빌타』 한국 독자들이 넓은 마음으로 본지를 신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1851년에 형성된 능동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과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과 감정의 소통이 진행된다. 이 소통은 우정과 깊이 연관되기도 하고 종종 깊은 친밀감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한편에서 나오는 (저자의) 충실함과 다른 한편에서 나오는 (독자들의) 신뢰가 만날 때 이런 소통이 이루어진다.”

『치빌타 카톨리카』 이탈리아어판 편집장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양숙자 수산나 옴김(선교학 박사)

## “용기와 예언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교종 프란치스코와 예수회 제36차 총회에 참석한 예수회원들 간의 대화

### «AVERE CORAGGIO E AUDACIA PROFETICA»

Dialogo di papa Francesco con i gesuiti riuniti nella 36a Congregazione Generale<sup>1)</sup>

이근상 시몬 신부 옮김(예수회)

2016년 10월 24일, 교종 프란치스코는 제36차 총회에 참석한 예수회원들을 만났다. 아침 9시 조금 전에 평범한 차로 총원에 도착했다. 이번 총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된 아르투로 소사 Arturo Sosa 신부를 비롯한 예수회원들의 영접을 받으며, 총회의장으로 들어와 총회 대의원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어서 준비한 훈화를 발표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대의원들과 진솔하고 애정이 담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총회 대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교종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교종은 사전에 질문들을 선별하거나 미리 보내 주기를 원치 않았다. 이런 즉흥성으로 해서 한 시간 반가량의 만남이 가족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대화가 끝난 후에는 그 자리에 있는 이들과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었다. 아래에 그 당시의 질문과 대답을 재현했다. 총회의장에서는 실무적인 이유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질문했다. 아래 본문은 교종의 답변을 읽기 쉽도록 질문의 본의를 살리면서 세분했다. 대화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옮겼다.

\* \* \*

성하께서는 예언자적 담대함의 살아 있는 모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런 담대함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기란 단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잘하는 방법을 아는 것,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소음을 내는 것은 아닌지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란 모든 사도적 활동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예언자적 담대함이 필요합니

1) *La Civiltà Cattolica* 2016 IV 417-431 | 3995 (10 dicembre 2016)

다. 우리는 오늘 파레시아<sup>2)</sup>, 즉 두려움이 없는 예언자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교종으로 선출되었을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동유럽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았고, 담대하게 그것들에 맞서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예언자적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를 식별해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적 담대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마지스magis<sup>3)</sup>라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그 마지스가 파레시아입니다. 마지스는 언제나 더 크신 하느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 더 크신 하느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식별은 깊어지고, 식별을 통해 담대함을 드러낼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일이 이번 총회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스, 예언자적 담대함, 파레시아를 실천할 ‘장소’를 찾는 식별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때때로, 예언자적 담대함이 외교적 수완, 즉, 강력한 표징을 동반한 일련의 설득 과정과 결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국가에서 만연한 부패와의 전쟁에서 예언자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부패는 예를 들어, 헌법에 규정된 임기가 끝나가는 권력자가, 개헌을 통해서 권좌에 머물려고 시도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예수회가 사회의식을 가르치고 고취하려 할 때, 담대하게 투신하여, 어떤 나라가 미래의 통치 권력을 결정하고자 할 때, 법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교종 성하, 식민지 개척자들이 토착민들을 다루는 방식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 의한 토지의 강탈은 참담한 사건이었고, 오늘날까지 그 휴유증이 있습니다.

- 
- 2) 파레시아Parresia는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그리스어다. 이는 증언하는 자의 용기와 진정성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전통에서 폭넓게 사용된 용어로, 특별히 초기 교회에서, 위선의 반대말로 자주 사용되었다.
  - 3) 마지스magis(the more, the greatest)란 이냐시오 전통에서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해서ad maiorem Dei gloriam”라는 유명한 행동원리로부터 온 말로, 강한 영성적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용어이다. 예수회원의 활동은 이 마지스란 말로 구별될 수 있다. 마지스는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언제나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긴장이다. 예수회원의 여정이란 하느님의 영광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의 식별을 통해서, 예수회원은 각각의 상황에서 선한 뜻을 식별해 내고, 보다 더 큰 선익을 가져올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운다.



교종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토착민들이 가진 풍요함이 우리에게 점점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힘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토착민들을 점점 더 압박해 가는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이들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화는 일종의 ‘단일 영역sphere’ 안에서 모든 것을 표준화, 규격화하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언자적 담대함, 깨어 있는 의식은 토착화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떠올릴 때 바로 그 단일 영역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면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면체의 형상을 좋아합니다. 하나이지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각각의 민족, 개인, 문화가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며 동시에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유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는 단조롭게 되고 파괴적이 될 것입니다.

표준화 과정과 파괴적 세계화가 회복해야 할 토착 문화를 도리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살려 낼 수 있는 올바른 세계관hermeneutic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 세계관은 식민지 개척 시대와 같아서 안 됩니다. 그때의 세계관은 사람들의 개종을 추구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결국 지역의 독립성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배적인 제국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믿음과 문화를 강요하는 중앙집권적인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태를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각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개별 문화와 언어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토착화의 과정을 도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기 교회의 선교 역사에 있었던 토착화의 시도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했던 사도 바오로의 체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에게 보여준 바는 복음이 이방 민족들 안에서 토착화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선교를 통해 교회가 팽창하던 시대에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마테오 리치나 로베르토 데 노빌리의

경험<sup>4)</sup>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개척자들이었지만, 로마 중심주의의 패권적 개념이 그들의 시도를 저지하고, 가로막았습니다. 문화가 존중되는 대화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의 종교적 세계관으로 각 지역의 사회적 관습을 해석한 데에서 벌어진 것이지요. 예를 들어 죽은 조상들을 공경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 잘못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금 토착민들의 고유성에 대한 더 큰 자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각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화가 감동을 주는 전례를 가능케 하고 진정한 경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신성사성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리신학과 관련해서 하나의 기억을 나누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부 학생일 때, 도서 담당이었습니다. 1700년대 이후 윤리를 다룬 문답 형식의 멕시코 서적을 검토하는 중에 이런 질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페인 남성과 토착민 여성 사이의 성적 결합이 대죄인가?” 저는 도미니코회원인 윤리학자의 대답을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 행위가 중대하므로 행위 자체로 보면 대죄이다. 그러나 이 행위의 결과가 신자 한 명을 더 많이 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므로 유럽에서 행해진 것과 같은 중죄는 아니다.”

교종께서는 담화를 통해 윤리는 식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윤리적 문제를 역동적인 식별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개별적인 상황들을 일반 규범의 사례로 이해하여 모든 일에 대해 포괄적 적용을 하는 해석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식별이 핵심 요소입니다.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사제 양성 과정에 식별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 아니면 백’ 다시 말해서 법적인 것에 쉽게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식별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

4) 예수회원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1552-1610)와 로베르토 데 노빌리Roberto de Nobili(1577-1656)는 진정한 개척자들이었다. 각각 중국과 인도로 파견된 선교사로서 그들은 복음의 선포를 지역 문화와 경배방식에 따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방식이 일부의 염려를 불러일으켰고, 교회 안에서는 그들의 행동방식을 마치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신학교에서 상황의 식별과는 거리가 먼 경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의론적인 윤리 개념<sup>5)</sup>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국 같은 노선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두렵습니다. 세계 청년대회 때, 크라쿠프에서 예수회원들과 만났을 때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에게 예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예수회의 중요한 임무는 신학생들과 사제들을 식별을 통해서 양성하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아마 여기서 가장 젊은 사람들은 빼고, 저보다 약간 후세대도 마찬가지로, 스킨라주의의 쇠퇴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학과 철학을 교범으로 배웠습니다. 한물간 스킨라주의이지요. 예를 들어, ‘형이상학적 연속’을 설명할 때에, 생각날 때마다 웃곤 하는데요, ‘팽창점들puncta inflata<sup>6)</sup>’의 이론을 배웠습니다. 위대한 스킨라 철학이 힘을 잃게 되었을 때에 저의 세대와 비슷한 이들이 배운 말기 스킨라주의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말기 스킨라주의가 결의론적인 태도를 조성한 것이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통 고해성사 과목은 성사 윤리 교수가 가르쳤습니다. 재미있게도 모든 윤리적 논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여기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식의 구분에 갇혀 버렸습니다. 한번은 고해성사 자격시험 도중에 제 동료가, 아주 복잡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아주 단순히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그런 일들은 실제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시험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책에는 나오지요!”

5) [역자 주] 결의론(決疑論)은 casuistry를 번역한 말이다. 일반 원칙을 개별 케이스case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사례 위주의 윤리적 방법론’이다. ‘식별’은 이와 달리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결정을 더 기뻐하실까를 묻고 결정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신앙생활과 고해성사 성찰 규칙은 주로 결의론에 따랐다. 금육재라는 일반 규범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자. “금육재 날에 날계란을 먹는 것은 금육재를 어기는 것인가, 아닌가? 날계란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고기라고 할 수 없으니 금육재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삶아서 먹는 것은 금육재를 어기는 것인가?” 하는 식이다. 교종은 몇 개의 예를 더 들어서 이야기한다. 결의론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결정한다면 신앙생활이 규범화되고 박제화되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삶으로 변질될 수 있다.

6) 교종은 로드리고 데 아리아가Rodrigo de Arriaga와 같은 예수회원들이 관련된 1600년대 초의 이론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식별과는 아주 거리가 먼 윤리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쿠코’<sup>7)</sup>라는 상황윤리의 유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버나드 헤링<sup>8)</sup>이 처음으로 윤리신학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게 하여 윤리신학을 다시 꽃피운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은 윤리신학의 성찰과 성숙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윤리신학이 더 이상 사례 중심의 결의론이 아닙니다.

윤리 분야에서 우리는 상황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함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스콜라주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보나벤투라도 다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반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될 것이지만, 개별 사안에 들어가면 문제는 다양해지고 일반 원칙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콜라식 방법은 유효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채택한 윤리적 방법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교회가 두 차례의 시노드를 통해서 식별을 한 뒤 최근에 발표한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의 입장입니다. 「사랑의 기쁨」에서 사용된 윤리적 입장은 토미즘인데, 그것은 위대한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이지, ‘팽창점들’의 저자가 주장한 토미즘은 아닙니다.

윤리 영역에서 우리는 과학적 엄밀함을 지켜야 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식별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윤리적 판단의 어떤 영역에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신학적 성찰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학은 무릎 꿇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없이 신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회에 대해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해 주는 긍정적인 것들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하는 다소 어두운 이야기들이 함께 있

7) 부기맨bogyman으로 번역될 수 있다. [역자 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깨비’이다.]

8) 버나드 헤링Bernard Häring(1922-1998), 구속주회원으로, 독일 윤리신학자이다. “Academia Alfonsiana” 창설자 중의 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의 작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준비와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성하게 묻고 싶습니다. 성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비판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내 온 상황과 환경에서 보면, 예수회에 대한 비판들은 주로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향수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시절에 한때 아주 매력적이었던 예수회 시절의 복귀를 꿈꾸는 이들의 비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예수회는 더 이상 소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예수회에 기대하시는 때는 더 이상 그 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회에 대한 비판의 이면에 있는 논쟁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회가 성령께서 예수회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충실하게 응답해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비판이란 누가 하느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아주 악의적인 비판자가 저를 돕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하고, 식별해야 합니다. 어떤 비판에도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귀를 닫으면 곧 그게 습관이 되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지요. 식별을 한 뒤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은 근거가 없고, 한쪽에 치워 놓아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비판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매일매일, 진심으로, 항상 선의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느님 앞에서 식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종교적인 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성하께서는 관구장으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구장으로서 여러 다른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에서 볼 때, 이런 양극화의 상황, 특히 예수회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아 저는 큰 정치에서 작은 정치로 계속해서 정치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 내의 정당 정치만이 아니라, 대륙 단위의 정치 분야에도 이러한 수준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은 바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유럽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연설을 통해 제 생각을 나눈 적이 있습

니다. 두 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한번은 ‘샤를마뉴’ 시상식에서였습니다. 또 프랑스의 주교들이 정치에 관한 성명서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는 15년인가 20년 전에 나온 「정치의 회복Régénérer la politique」이란 아주 중요한 선언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선언으로 정치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일치시키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일치시키는 장인정신의 정치를 독려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정치인들이 안 보입니다. 대의를 위해 충심으로 투신하고, 대화와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성과 정치인 고유의 카리스마를 갖추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정치는 최고 형태의 애덕에 속합니다. 위대한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극화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대화입니다.

예수회 생활하시면서 평수사<sup>9)</sup>들의 역할이 어떠하다고 경험하셨는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회 평수사 성소로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수사들에 대한 제 경험은 언제나 아주 좋았습니다. 연학기 동안 함께 살았던 수사님들은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제들이나, 연학수사들과 다른 종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수사님들이 많지만 여전히 “나는 잘 모르는데,” 하며 사제들과는 사뭇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저는 이런 지혜, 평수사로서 얻는 이런 특별한 슬기로운 자질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평수사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는 그들의 특별한 감각에 감명을 받곤 했습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인데, 예를 들어, “저 신부님 좀 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와 같은 말을 할 때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평수사들은 거의 다 분별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평수사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알아차리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특별한 은총

9) [역자 주] 예수회는 성직수도회로 출발하였는데, 성직자의 신분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회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려는 이들도 초기부터 있었다. 이나시오는 이들을 받아들여 속무(俗務)보조자로 삼았다. 평수사는 이 속무보조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사제와 평수사의 비율이 거의 1:1이었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수사의 수가 격감하였다. 한국관구에는 현재 5명의 평수사가 있다.

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오늘날 평수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찾아가야 하겠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종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이사 2,4)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대륙, 아프리카에는 전 주민의 열 배를 살육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활동은 긴급한 요청입니다. 저는 일 년 반 쯤 전에 세계는 여기저기서 소규모로 제3차 세계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규모의 전쟁들이 점점 더 크게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고, 많은 나라에서 그 대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중동을 보세요. 아프리카를 보세요. 계속되는 전쟁 상황입니다. 이 전쟁들은 식민 지배와 착취의 역사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독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독립을 선사했던 바로 그 나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지분을 그 땅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그 풍부한 자원을 약탈하려는 이들의 먹잇감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이들 나라에 관심도 없었던 이들까지 가세한 형국입니다. 아프리카는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몇몇 나라에서는 이념화의 문제가 사회에 심대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평화를 위한 활동이, 진복팔단 중에 하나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적 선택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평화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람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게 올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정치를 통해서, 또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보여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질 때,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여기에서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고, 특히 처음 나서는 사람에게는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교는 우리 성소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 구원과 개인 구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홀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분명한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혼자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완덕의 길을 통해서, 혼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사용하신 형용사, ‘위선적’이라는 말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위선으로 끝장이 날 것입니다. 일종의 엘리트 의식으로, 혼자서 구원받겠다고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애쓰는 것은 위선입니다. 주님은 모든 이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실제 생활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충고는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체험할 것인지는 개인적, 공동체적 식별에 달려 있고 기도에 부쳐져야 합니다. 학문 연구와 실제 삶, 단지 변두리만이 아니라 변두리의 끝에서 겪는 삶, 그리고 기도, 개인적 공동체적 식별,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 공동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뭔가가 빠져 있다면 그건 좀 걱정입니다. 만약 연학이 부족하면, 어리석은 소리를 하기 쉽고,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상황을 이상화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연학이 보통 사람들의 객관적인 맥락을 잘 알고,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의 동반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순진한 이상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와 식별이 부족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복음적 담대함과, 간직해야 할 복음적 십자가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35차 총회 후에 예수회는 생태환경적 도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회는 「찬미받으소서」를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종께서 다양한 기관과 대화의 문을 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에 계속해서 투신하기 위해서 예수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산한 회칙입니다. 새롭



게 발견된 사실들과 단순치 않은 가설들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작업입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지침을 정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약간 표현을 다듬어 최종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함께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자원의 남용, 자연 학대로 인해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이 회칙이 ‘자연 보호 회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회 회칙입니다. 회칙이 생태적인 관점에서 현 상태를 설명하며 시작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회 회칙입니다. 생태적 위기의 결과로 고통받는 자들이 가장 가난한 이들이며, 버림받은 이들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회칙은 사람을 폐기 처분하는 문화에 맞서는 회칙입니다. 우리는 회칙의 사회적 측면을 좀 더 진지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회칙 작성에 참여했던 신학자들은 생태적 현상들이 사회적 현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각하고자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 회칙을 사회 회칙으로 보는 것이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교종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예수회를 원하십니까? 예수회가 그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난이란 측면에서 성 이냐시오는 우리를 한참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 청빈 서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한 점을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성 이냐시오는 가난을 자신을 더 쥐어짜내며, 더 큰 고통을 감수하도록 이끄는 수덕적 태도가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서 구원의 방식이며, 교회의 방식인 가난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이냐시오가 가난과 관련해서 사용한 두 개의 핵심 단어가 어머니와 성채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양육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렇듯, 가난은 영적 삶, 거룩한 삶, 사도적 삶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이 삶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예수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얼마나 많은 교회의 재앙들이 가난의 결핍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제가 살피야 할 많은 스캔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냐시오 성인이 아주 위대한 통찰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가난에 대한 이냐시오의 비전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 중 하나인 성직주의는 가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직주의는 부자입니다. 돈으로는 부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부심으로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성직주의는 실제로 부자입니다. 성직주의에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인 가난이 자신을 양육하도록 허락하지도 않고 가난의 성채 안에서 보호받도록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성직주의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부의 한 형태입니다. 적어도 일부 지역의 교회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는 복음의 교회이며, 마태오 복음의 산상수훈, 루카 복음의 들판 수훈의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은 우리를 심판할 기준이기도 합니다. 마태 25장을 보십시오. 저는 복음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또한 예수회가 가난에 대한 이냐시오의 비전을 심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비전은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무엇입니다.

교종께서 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하루를 마치고 성찰하실 때, 어떤 것들이 교종께 위로를 주고, 어떤 것들이 위로를 앗아갑니까?

저는 지금 가족에게 말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요.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항상! 우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잘 안 된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제가 발견해 낸 최선의 항우울제입니다. 주님 앞에서 서서, 주님께서 하루 동안 하신 일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놓아둘 때, 저는 위로를 발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셨음을 깨달을 때, 비록 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저를 감싸는 물결처럼 저를 이끄시는 힘이 있었음을 깨달을 때, 저는 위로를 느낍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여기 계신다.’는 느낌입니다. 교종직에 대해서도 ‘제가 이 춤을 추도록 이끈 힘은 투표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내적 믿음이 제게 위로를 줍니다. 이것이 제게 위로입니다. 저의 저항이 승리하는 순간들

마다, 저는 슬픔 속에서 용서를 청합니다. 이걸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제게 유익을 줍니다. 이냐시오가 말하듯, 자신이 '구제불능'임을 깨닫는 것, 자신이 저항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매일 저항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저항을 이겨 내지만, 때때로 이겨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런 경험이 자신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 체험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은 아주 감동적이었고, 복음화란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이야기하도록 복돋고 있습니다. 권고의 마지막에 저희들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종의 문헌이 가진 위험 중에 하나는 문헌이 얼마간 흥미를 일으키지만 이어서 다른 문헌이 나오면 그 전의 것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이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모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복음의 기쁨」의 주제가 더 심화되도록 마지막 부분에 지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복음화의 방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질문자는 아마도 권고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아페레시다 문헌<sup>10)</sup>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현대의 복음 선교」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시의적절하고 생생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문헌은 제가 보기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로 가장 중요한 사목 문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도 않고 인용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들이 「복음의 기쁨」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복음의 기쁨」에서 언급한 강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주제가 침묵 속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론은 교정되어야 하며, 성직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의 기쁨」이 심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오늘날 교회가 바라는 복음화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신도 그룹, 사

10) [역자 주] 2007년 5월 브라질의 아파레시다에서 가진 라틴아메리카 주교 총회에서 작성한 주교회의 문헌으로 교종 베네딕토 16세의 승인을 얻었다.

제 그룹,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음의 기쁨」은 됐고, 이제 「찬미하여라」가 새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제 됐고, 앞으로는 「사랑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의 기쁨」을 기본 골격으로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현대의 복음 선교」와 아파레시다 문헌을 결합하여 만든 문헌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복음화를 주제로 한 시노드 다음에 나왔지만, 이 문헌이 가진 강점은 앞의 두 문헌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오늘날 교회가 사도적 봉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골격입니다.

교회가 성소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 증진 활동에 미온적이었던 지역들에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교로 있을 때 일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부들과 대화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본당에 보석 같은 신자가 있어요!” 그들은 일등급 평신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부제로 서품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평신도를 부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를 성직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 우엘레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혔듯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직주의에 빠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것이 민중신심입니다. 사실 민중신심 행위는 사제들은 믿지도 않았던 ‘백성들의’ 풍속 중에 하나였기에, 평신도들의 창조성이 발휘된 영역이었습니다. 일부 교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민중신심 행위는 사제들이 관여하지 않았기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성직주의는 성장을 돕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례성사의 권능이 자라나도록 허용하질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함께 주신 은총과 권능은 세례의 은총에서 옵니다. 성직주의는 이 은총을 통제하고, 의존성을 높여서, 때때로 모든 사람들을 극심한 미성숙의 상태로 놓아두곤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또 젊은 사제였을 때, 교회의 기초공동체들이 등장했고, 그때 벌어진 싸움을 기억합니다. 왜냐

구요? 평신도들이 힘찬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처음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바로 몇몇 사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도 너무 일반화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너무 단순화해서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직주의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회의 성소와 관련해서는 성소 감소의 문제를 다음번 시노드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성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은 성소를 어떻게 권하고, 성소에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사제가 언제나 너무 바쁘고, 천 가지 사무에 정신이 없다면, 영적지도가 본래 성직자의 성소가 아니라, (사제들도 계발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본래) 평신도 성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소 식별을 할 때,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소가 없을 거란 것은 분명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젊은이들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앉아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적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일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모임을 가져 봐야 별로 의미도 열매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선교나 교리 봉사, 사회 활동에 파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한번은 번두리, 즉 빈민가에 있는 본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당사제가 모임방을 만들고 있더군요. 이 본당사제는 주립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이어서, 함께 하는 남녀 청년들에게 열정과 열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그들은 석공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술자는 유대인이었고, 여학생들 중에 한 명은 무신론자였고, 다른 친구는 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과업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제게 한 가지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들에게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성소를 증진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인 교회에

직접 불임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 증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난관을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낳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지털화가 현대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은 속도, 팽팽한 긴장, 그리고 혼란crisis을 초래했습니다. 디지털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속도와 함께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삼십여 년 전에 ‘rapid-ize빠르게 만들다’라는 한 단어를 고안해 냈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기하학적 궤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디지털 세상이 잠재적인 위협이 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 ‘rapid-izing빠르게 만들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구체적인 것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액화현상<sup>11)</sup>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유럽의 한 주교님이 사업가 친구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교님에게 어떤 거래를 십 분 내에 끝내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보여 주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콩으로 소를 팔고선, 몇 분 뒤에 그의 계좌로 즉각 그 이윤이 송금된 것입니다. 경제의 액화현상, 노동의 액화현상, 이 모든 것이 실업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욱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귀라는 말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의미하기에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복귀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볼베르 volver(‘돌아가다’라는 뜻을 지닌 스페인어)가 아르헨티나 탱고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네요! 노동의 구체적 차원을 회복시키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5세 이하 젊은이들 중에 40퍼센트가 실업상태입니다. 스페인에서는 50퍼센트, 크로아티아에서는 47퍼센트입니다. 이 액화현상이 실업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어 고맙고,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 \* \*

11) [역자 주] liquidity. 직역하면 유동성, 물처럼 잡히지 않는 경제거래 따위를 뜻함.

대화가 끝나고, 예수회 총장 아르투로 소사 신부가 다음과 같은 말로 교종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교종 성하, 두 차례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36차 총회에 참석한 형제들을 대표해서, 형제로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 주셔서 하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식별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깊이 살아내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사는 교회와 함께, 또 선의를 품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가며,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고, 화해를 통해 위로를 나누며, 시대의 징표를 민감하게 식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 일은 길 위에서 발견한 많은 아름다운 지점에 그저 머물고픈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간직한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어디든 파견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주 예수님의 강생의 역동을 따라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덜어 주며,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정의, 대화와 화해, 관상과 활동 사이의 긴장을 간직하며, 우리의 행동양식에 따라, 우리는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저희들은 문화의 다양성 안에서 인간의 풍부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복음을 더 잘 선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께서 지니신 다문화적인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토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성하의 충고를 충실히 따라서, 성하의 멈추지 않는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저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 우리 모든 예수회원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누어 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착한 사마리아인 교회

자비의 해를 마감하며

VATICANO II E CHIESA SAMARITANA.

La Chiusura dell'Anno della Misericordia<sup>1)</sup>

산티아고 마드리갈 신부(예수회, 교황청립 코미야스 대학)

김희자 사베리아 수녀 옮김(성바로출판사)

2015년 12월 8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50주년 폐막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프란치스코 교종이 선포한 자비의 해는 이날 시작되어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마감되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공의회 이후의 교회는 하느님 자비의 때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반복하였다.<sup>2)</sup> 이로써 희년의 교회론적 의의와 그 중요성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즉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에게” 쓴 희년 선포 칙서 「자비의 얼굴Misericordiae Vultus」(이하 MV)<sup>3)</sup>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자비를 관조하는 것은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신비를 성령의 선물과 함께 맛보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MV 4 참조) 희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메시지를 따라 칙서를 재독함으로써 자비가 어떻게 하여 공의회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두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 신앙의 신비는 ‘자비’라는 말로 잘 요약됩니다.”(MV 1)라고 선언한다. 기본적인 질문은 명백하다. “성경의 메시지인 자비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근본적인 신학적 선언 및 특별 희년의 정신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의 첫 번째 답을 바로 이 칙서에서 찾으려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칙서의 서두에서 내린 교종의 선언은 「자비의 얼굴」이 실마리가 되어 ‘교회에 관한 교회의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1) *La Civiltà Cattolica* 2016 IV 325-339 | 3994 (26 novembre 2016)

2) 참조: Papa Francesco, «Tempo della misericordia», in *Oss. Rom.*, 14 marzo 2014, 14 s.

3) 참조: 프란치스코 교종, 「자비의 얼굴」 (2015.4.11), n.13 (이하 MV로 표기).



비판적으로 읽도록 하며, 결국 공의회의 문헌과 가르침을 그리스도론의 관점에서 읽게 한다.

또한 이러한 고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또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위 문헌들과 함께 베르골료 교종의 다른 가르침들, 특히 사도적 권고인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이하 EG)에서 볼 때 “섬기는 교회”의 모델, “착한 사마리아인 교회”의 모습은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 공의회의 수용

교종 프란치스코는 칙서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기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 특별 희년 선포의 동기를 발표하였다. “제가 12월 8일을 선택한 것은 이날이 교회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이 되는 이날 성문을 열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공의회를 생생하게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교회는 역사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성령강림 때처럼 공의회 교부들은 하느님을 동시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할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온한 도성처럼 감싸주던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복음화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MV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 역사 안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공의회를 이끌었던 원동력, 곧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려는 선교적 열성을 생생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방어적인 자세를 지닌 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저는 교회를 전투가 치러진 후의 야전 병원과 같다고 봅니다.”<sup>4)</sup>

「자비의 얼굴」 4항에서 우리는 자비의 메시지와 교종 성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가 실현하고자 했던 공의회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본다. “요한 23세 성인이 공의회를 시작하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혔던 뜻깊은 말씀을 되새김니

4) A. Spadaro, «Intervista a Papa Francesco», in *Civ. Catt.* 2013/ III, 461.

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엄격함이 아닌 자비의 영약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 가톨릭교회는 공의회를 통하여 신앙 진리의 햇불을 높이 들고, 사랑이 넘치는 모든 이의 어머니, 인자하고 인내하는 어머니, 갈라져 사는 자녀들에게 다정하고 자비로운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바오로 6세 복자는 공의회를 마치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공의회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옛이야기가 우리 공의회를 이끈 모범이자 규범이었습니다. ... 공의회는 현대인들에게 열정과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류는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 진리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도 오류를 거부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오류는 경계하여야 합니다. 공의회는 분명히 정신을 혼란시키는 질병을 깨닫고 위로가 가득한 구원의 영약을 가져다주었으며 불길한 징조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현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의회는 풍요로운 가르침은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 온갖 나약함을 지닌 인간, 갖가지 요구를 지닌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것입니다.’”(MV 4)

교종 프란치스코와 바오로 6세의 이 두 문장 자체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성 요한 23세의 공의회 개막 메시지와 복자 바오로 6세의 폐막 연설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자비는 공의회를 시작과 마침에서 표현되었다. 성 요한 23세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 “어머니이신 교회가 기뻐합니다 Gaudet Mater Ecclesia”(1962.10.11)에서 자비는 가톨릭 신앙 진리를 표현하는 근본 조건이며 따라서 사목적 성격의 공의회를 가능케 하는 주요 테마라고 하였다<sup>5)</sup>. 또한 바오로 6세는 공의회를 마감하는 훈화에서 사목적 사랑의 종교적 차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주요 노선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공의회를 영성을 한눈에 알려 주는 스케치와도 같다.

교종 프란치스코의 언행과 관련해서는 2014년 4월 27일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그해 ‘하느님의 자비 주일’에 교종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 시성식이 거행

5) 참조: G. Alberigo, «Dal bastone alla misericordia. Il magistero nel cattolicesimo contemporaneo (1830-1980)», in *Cristianesimo nella storia* 11 (1981) 487-521.

되었는데, 강론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이 설명한 것처럼 두 분은 공의회와 상징적으로 일치된 분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교종의 성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묘사한 교회와 미래에 관한 교종 프란치스코의 관점과 잘 연결된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위대한 실행자인 두 분의 성덕을 선포함으로써 공의회를 21세기 가톨릭교회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사건으로 제시하였다.”<sup>6)</sup>

요컨대 자비는 칼 라너가 ‘근본적인 해석’이라고 칭한 역할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하게 된 듯하다. 이제부터 자비는, 내부를 향해서는 쇄신의 전망 그리고 밖을 향해서는 열린 시선을 갖고, “현재화aggiornamento” 및 사목적 애덕을 실행하는 모든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범주가 된 것이다. 이로써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갖는 항구적인 의미의 핵심이 바로 그 심오한 급진성과 질적인 신기원에 있음을 알게 된다.

자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수용하게 하는 일종의 아르키메데스 점<sup>7)</sup>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칙서에서 제시되는 자비에 관한 네 가지 정의(MV 2 참조)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네 개의 헌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첫째로,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헌장」(DV)의 핵심인 “자비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둘째,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C)의 성사적인 특성으로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행위입니다.” 셋째,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GS)의 인간학적인 열쇠로서 “자비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근본 법칙입니다.” 넷째,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G)의 친교적 특성을 지닌 개념과 함께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 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 줍니다.” 우리는 교종의 가르침에 따라 “언제나 자비의 신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MV 2) 이제 칙서의 주제가 제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십니다.”(MV

6) A. Riccardi, *La santità di Papa Wojtyła*, Cinisello Balsamo (Mi), San Paolo, 2014, 51.

7) [역자 주] 관찰자가 탐구 주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유리한 가설적 지점. 연구 대상으로부터 관찰자가 제거됨으로써 연구 대상을 그 밖의 모든 것들의 관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그것들을 독립적인 것들로 유지하게 해준다. 이 표현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충분히 긴 지렛대와 그것이 놓일 장소만 주어진다면, 지구라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1)라는 해석의 열쇠를 따라 지금 살펴본 형상적인 관계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공의회를 수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성령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사건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의 빛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자비로운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MV 8) 교회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점은 삼위일체적 측면임을 잊지 않고 자비의 얼굴의 비추임을 받아 교회의 신비를 관조하기로 한다. 이것과 함께 교회론을 다룬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론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하느님의 자비

교종 프란치스코의 칙서는 명상의 문체를 가진 지혜로운 신학자 마리 조제프 르기유 Marie-Joseph Le Guillou(1920-90)의 『부활하신 분의 얼굴』<sup>8)</sup>을 상기시킨다. 도미니코회원이며 공의회 전문가인 그는 저서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가르침을 설득력 있게 요약하였다. 본래 이 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예언적, 영적이고 교의적이며,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위대함”이라는 부제로 1967년에 출판되었다. 이 공의회에 대한 해석에 대한 우리의 당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성찰들이 중요하다. 저자가 처음에 의도한 제목은 “사건으로 본 공의회”인데, “공의회 문헌들의 단순한 분석을 넘어 공의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전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sup>9)</sup>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공의회 사건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또 다른 제목도 생각했었다. 아무튼 우리는 르기유 자신도 인정하였듯이 책 제목을 평범하지 않게 선택한 그의 최종 결정을 이미 알고 있다. 공의회에 대한

8) 참조: M.-J. Le Guillou, *Il Volto del Risorto. Grandezza profetica, spirituale e dottrinale, pastorale e missionaria del Concilio Vaticano II*, Siena, Cantagalli, 2012.

9) 같은 책, 32.

연구 결과를 『부활하신 분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그 작품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콜로 1,15), 그리스도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이라는 신학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반적인 이 요약은 성 요한 23세가 1962년 9월 11일에 행한 라디오 훈화의 몇 가지 내용에서 시발된다. 그 훈화에서 교종은 이 보편 공의회를 일컬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과 교회의 만남”이라고 표현했다. 같은 훈화에서 요한 23세는 교회를 그리스도 신비의 밝은 빛으로 언급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교회, 인류의 빛이라고 선언하는데, 그 표현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서두에서 나오는 바를 반영한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빛(Lumen gentium)이시기에 성령 안에 모인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마르 16,15 참조), 모든 사람을 교회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LG 1)

그런데 공의회가 진행되는 녹록치 않은 여정에서 요한 23세의 그리스도론적 전망이 시험을 받게 되고, 계시에 관한 두 가지 원천이 거부당하면서 역설적으로 다시 그리스도 신비의 빛으로 옮겨가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 공의회장 토론에 이은 1962년 11월 20일의 결정투표에서 새로운 헌장인 「계시 헌장Dei Verbum」을 작성하기로 하여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계시자로 소개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의식 없이는 교회 자신과 그 신비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요한 14,9) 교종 프란치스코는 칙서의 서두에서 “나자렛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 당신의 온 인격으로(DV 4)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MV 1)라고 썼다.

성경과 성전은 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관조하는 거울이다.(DV 7) 신학은 그 충만함에 이른 그리스도의 신비를 소재로 삼는다.(DV 24) 아버지의 얼굴인 그리스도는 성경에 현존하시며 숨어 계신다. 한편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전례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진정한 본성”(SC 2)을 표현하고 드러나게 해 준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복음 선포와 애덕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시적이게 한다.

르기유는 이를 전제로 하여 교회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문헌은 경이롭게도 헌장, 교령, 선언으로 구성되어 그 내적인 논리를 보여준다. 입문의 경로는 모름지기 계시 헌장과 전례 헌장이다. 두 가지 헌장 덕분에 교회 헌장과 사목 헌장과 그 밖의 모든 문헌들의 참된 의미, 곧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10)</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흐름은 계시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간다.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신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의 신비,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성전을 규정하고, 하느님의 빛나는 얼굴 안에 존재한다. 공의회에서 교회는 주님을 관조하고자 했는데 이로써 자신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반사하고 성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공의회 역동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조하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비추시는 그분의 움직임으로 요약된다.

「자비의 얼굴」 칙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성서의 영감을 다루는 부분에서 요약하고 있다.<sup>11)</sup> 구약 성경의 기본 자료와 시편의 ‘인내롭고 자비하신’ 하느님을 제시한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종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요한 4,8,16)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얼굴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인이나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병자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은 자비를 보여 줍니다.”(MV 8) 자비에 관한 비유를 숙고한 다음 교종은 우리에게 “자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일 뿐 아니라, 참된 하느님 자녀의 식별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MV 9)라고 말한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행위를 반영하고 나타낼 차례가 되었다. “우리가 먼저 자비를 입었으므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MV 9)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조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신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또 한 분의 공의회 교종인 바오로 6세가 지닌 신념으로, 그는 회칙 「주님의 교회Ecclesiam Suam」(이하 ES)에서 이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그리고 몬티니를 지극히 경애하는 프란치스코 교종은 바로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

10) 같은 책, 88.

11) 참조: MV 6-9.

뽀」에서 그것을 실현 가능한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교회가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교회 자체의 신비를 묵상해야 합니다. … 이러한 교회의 분명하고 활발한 자기 인식은 거룩하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상적인 교회상과(에페 5,27 참조) 현대 세계에 제시되는 실질적인 교회상을 비교해 보도록 이끌기 마련입니다. … 그러므로 교회는 쇄신을 위하여, 곧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성찰을 통하여 교회의 지체들로 말미암은 결함들을 지적하고 단죄함으로써 그것들을 바로잡고자 과감하고 열정적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EG 26; ES 10 참조)

그리스도께 충실하기 위한 교회의 이러한 쇄신의 갈망에는 ‘회심으로서의 사목’이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기에 교종 프란치스코는 교회가 선교를 위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교에서는 사명과 교회 개혁의 이러한 연결성이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그의 사도적 권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기 위해 항상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UR)의 방향으로 분명하게 나아간다. “교회의 모든 쇄신은 본질적으로 교회 소명에 대한 충실성의 증대에 있다. … 나그넷길에 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서 또 인간적인 지상 제도로써 언제나 필요한 이 개혁을 끊임없이 계속하도록 그리스도께 부름 받고 있다.”(EG 26; UR 6 참조) 달리 말해 역사 안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의 얼굴에 관한 표현들은 교회 개혁의 확실한 계획을 이끈다.

### 가난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상을 따르는 가난한 섬김의 교회

르기유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리스도론적 차원을 부각시킴으로써 공의회 문헌을 재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의 관심은 훨씬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공의회 문헌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비의 얼굴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는 자신의 개혁과 회심을 통하여 어떤 측면을 재현하도록 불리는가? 이제 본질적인 구절 몇 개를 상기하고 함께 성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성 요한 23세의 담화에는 예언적인 말씀들이 내포되어 있다. “저게

발국가들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든 이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교회로 보이기를 바랍니다.”<sup>12)</sup> 이러한 요한 23세 교종의 염려가 맨 먼저 호응을 받은 것은 교회의 청빈과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에 대한 숙고를 위해 모인 로마의 콜레조 벨가(벨기에인 사제 신학생 기숙사) 사제 그룹에서였다. 첫 회기 말미에 교회론에 관한 논의를 하는 동안 그 모임에 함께했던 레르카로 Lercaro 추기경이 공의회 첫 회기 폐막 전야인 1962년 12월 6일의 유명한 담화를 하여 그 기획의 첫째가는 수호자가 되었다.

공의회의 구심점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도 탁월하게 주장하였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는 예나 지금이나 늘 그러하였고, 오늘날 특히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교회가, 교종 요한 23세께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이의 교회라면, 오늘날 특히 ‘가난한 이들의 교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만일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는 일과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새롭게 하는 일과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공의회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공의회의 주제는 교회 특히 가난한 이들의 교회입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개인들과 집단적으로 가난한 온 세상의 가난한 백성들의 교회입니다.”<sup>13)</sup>

이것은 가난에 관한 신학적 차원과, 가난하며 가난한 이들의 종인 교회에 관한 성찰의 예고편으로써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1장 8항에서 읽을 수 있다. 공의회가 강생하신 말씀이라는 비유에 비추어 교회의 신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때에 다음의 성찰을 추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필리 2,6-7), 우

12) Giovanni XXIII, s., *Radiomessaggio ai fedeli di tutto il mondo a un mese dal Concilio Ecumenico Vaticano II*, 11 settembre 1962, in [www.vatican.va](http://www.vatican.va)

13) C. Lorefice, *Dossetti e Lercaro. La Chiesa povera e dei poveri nella prospettiva del Concilio Vaticano II*, Milano, Paoline, 2011.



리를 위하여 ‘부유하시면서도 가난하게 되셨다.’(2코린 8,9) 이렇게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인간적인 힘이 필요하겠지만,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범으로 비움과 버림을 널리 전하도록 세워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 찢긴 마음을 싸매 주며’(루카 4,18 참조),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루카 19,10)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셨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LG 8)

본문은 교회와 가난 사이에 성경에 바탕을 둔 고유한 관계, 불가결한 관계가 있으며, 레르카로 추기경의 구도에서 가난을 교회 정체성 문제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보았듯이 뚜렷하게 그리스도론적 바탕이 있음을 강조한다. 계시의 증언에 의하면 가난과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는 근원적인 관계가 있다. 그것은 케노시스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느님의 강생 계획에 있어서 우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방식이기 때문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이어 가도록 불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온 교회의 가난에 대한 소명이 솟아난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신 것처럼 교회도 가난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여정을 일러 주신다.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자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교회는 가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반영하고 비추어야 한다.

공의회 마지막 날 인준을 받은 「교회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Ad Gentes」(AG)도 같은 것을 가르친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서 성삼위의 사명이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면(LG 2-4 참조) 이 교령은 교회 사명의 마지막 기초가 된다. “교회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AG 2) “선교 활동은… 구원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현존하시게 한다.”(AG 9)

이 교령을 「교회 헌장」에서 표현한 교회론적 노선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 보자. “이러한 사명은 계속되며 또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되셨으므로, 그리

스도의 성령으로 인도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 나가야 한다. 곧 가난과 순명과 봉사의 길, 또 죽음에 이르는 자기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부활로 그 죽음에서 승리자가 되셨다.”(AG 5)

### 구원을 주는 자비의 성사인 교회

「사목 헌장」(GS)은 인간 역사를 시대의 징표에 비추어 보는 신앙의 독서이다. 이 헌장을 준비한 부서는 1962년 10월 20일자 “모든 이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현존하는 불균형, 사회 계층 간 발전의 격차,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에 관해 서술한다. “굶주림에 짓눌린 사람들이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GS 9) “하나인 인간 가족의 구성원들이나 민족들 사이의 지나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추문을 일으키고, 사회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은 물론 사회적 국제적 평화에 배치되기 때문이다.”(GS 29)

「사목 헌장」에서 “가난의 정신과 애덕이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이며 증거”(GS 88)라고 단언할 때 복자 바오로 6세가 첫 번째 회칙에서 밝힌 근본적인 영감을 다시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자비 활동의 예를 들면서 가난의 복음적 정신에 관한 영감이 서술된 「사목 헌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그것이다. “특히 현대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 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노인이든, 불의하게 천대받는 외국인 노동자든, 피난민이든, 불법적인 결합으로 태어나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어린이든, 그리고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하신 주님 말씀을 상기시키며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GS 27)

다시금 그리스도론적 동기가 부각된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현존의 표지이다. 그러므로 자비를 청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애덕에서 특전적인 사람들이다. 사실 「사목 헌장」 제1부의 모든 인간학적 성찰에는 그리스도론이 깔려 있는데, 그것은 예비안의 최종 선언문에서 시작하여 각 장의 결론 부분에 요약되어 있다.(GS 22, 32, 38, 45 참조) “그러므

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신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공의회는 인간의 신비를 밝히고 현대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 협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GS 10)

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간 역사의 열쇠이며 중심이고 결론”<sup>14)</sup>으로 신앙의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 “그리스도론적 신경”은 인간학적 노선으로 발전된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GS 22) 그리고 동시대 세상에서 교회가 짊어지는 과제를 다루는 제4장에서 성사-교회론적 노선으로 제시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 표징이며 도구이다.”(GS 42; LG 1 참조)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이 자신의 지상 순례 시간에 인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익은 교회가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실천하는 ‘구원의 보편 성사’라는 바로 이 사실에서 흘러나온다.”(GS 45; LG 48 참조)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을 위한 자비의 성사가 되라고 부름받았다. 르기유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하느님의 성사이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이다.”<sup>15)</sup> 자비의 신비는 이러한 성사적 차원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역사적인 방식의 한 차원이다.

#### 자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교회

이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철저히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칙서의 교회론 부분<sup>16)</sup>을 정확히 이해할 틀을 갖게 되었다. 칙서는 교회가 양심성찰을 하듯이 “자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길이 잊히고 있고 교회가 용서에 관한 경험이 사라진 세상에 살면서 정의와 율법주의에 첫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

14) 참조: Th. Gertler, *Jesus Christus. Die Antwort der Kirche auf die Frage nach dem Menschsein. Eine Untersuchung zu Funktion und Inhalt der Christologie im ersten Teil der Pastoralkonstitution «Gaudium et spes» des Zweiten Vatikanischen Konzils*, Leipzig, St. Benno Verlag, 1986.

15) M.-J. Le Guillou, *Il Volto del Risorto...*, cit., 149.

16) 참조: MV 10-12.

다.<sup>17)</sup> 프란치스코 교종은 “자비는 교회생활의 토대”라고 간결하게 말한다.(MV 10) 이처럼 복음선포와 증거는 온유함과 연민과 자비로 감싸져야 한다.

더 근원적인 속고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 Dives in Misericordia」(이하 DM)(1980)에서 유래한다. 그분의 기획적인 회칙 「인간의 구원자」(1979)에서 보이티아 교종이 「사목 헌장」의 핵심 메시지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궁극적인 실제와 소명을 드러내심을 강조했다면(GS 22 참조) 두 번째 회칙은 이러한 인간학적 전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에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의 신비라는 전망으로, 곧 ‘자비가 풍성하신’(에페 2,4) 아버지의 관점에서 완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구약 성경과 예언자들의 설교에서 “자비란 죄와 선택된 백성의 불충실보다 더 우세한 사랑의 특별한 힘이라는 의미다.”(DM 4) 신약성경에서 하느님 자비의 진수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 표현되어 있다.(루카 15,11-32) 이제 하느님 자비의 근원적인 계시의 절정은 파스카적 신비이다.(DM 7 참조)

따라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계획은 당신 백성, 교회를 위한 계획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하느님의 자비는 “세세 대대로”(루카 1,50) 교회의 사명 안에서 빛난다. 그러므로 자비가 인간 중심적이 될수록 더욱 하느님 중심의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향해야 한다.

여기서 하느님 자비를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하도록 교회에 맡겨진 임무가 유래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에게 다가가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본받습니다. ...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MV 12) 프란치스코 교종이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20. 46)에서 특별히 제안하였듯이 “우리 시대의 세계가 종종 비참한 방식으로 만들어 낸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성년에 마음을 여는 체험을 하도록”(MV 15) 초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육체적 자비의 활동(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

17) 정의와 자비의 관계에 관하여 MV 20-21에 나옴.

이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를 입히고,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고, 아픈 이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보고, 죽은 이들을 묻어 주는 일)을 재발견하도록 격려하며, (의심하는 사람을 권고하고,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고, 죄인들을 충고하며, 괴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성가신 사람을 인내로 견디며,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도록) 영적 자비의 활동을 격려한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을 한 교회

앞에서 말했듯이 프란치스코 교종은 공의회 이후의 교회가 ‘자비의 때’를 살고 있다고 반복하여 말한다. 교종이 인용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에 관해 말할 때 이웃에 대한 최대의 외적 표현이 자비라고 했다. “자비는 그 자체로 가장 큰 덕입니다. 자비에서 다른 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비는 다른 덕의 부족함을 채워 줍니다. 이는 가장 높으신 분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느님의 고유한 속성이며, 여기서 하느님의 전능이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sup>18)</sup>

모든 추상적인 대화 형태를 넘어 교회 공동체, 본당, 협회, 운동, 복음화와 선교 활동의 주체인 현대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재현하고 ‘자비의 오아시스’를 일으키도록 부름 받았다. 교종은 사도적 권고에서 다섯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복음화하는 공동체’를 묘사하였다. “출발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첫걸음을 내딛고, 뛰어들고, 함께 가며, 열매 맺고, 기뻐합니다.”(EG 24)

첫째, 복음화하는 공동체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 신조어(primerear)로 교종은 우리를 앞서시고, 만나러 오시며, 그 만남을 주도하시는 하느님의 활동 방식을 설명한다. 이것이 은총의 주도권 원칙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성사로 파견하셨다.”(EG 112) 복음화하는 공동체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말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그 무한한 힘을 경험하였기에 자비를 베풀려는 끝없는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EG 24)

18) EG 37, 『신학대전』 II-II, q. 30, a. 4에서 인용.

둘째, 그 결과로 복음화하는 공동체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뛰어든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굴욕을 당하기까지 낮추며, 필요하다면 “백성 안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진다.” 따라서 복음 선포자들은 “양의 냄새”를 풍긴다.

셋째, 복음화하는 공동체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내하며 오래 기다리면서 “함께 간다.” 그래서 구체적인 환경에 말씀이 육화하게 하면서 생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음화하는 공동체는 “기뻐할 줄” 알며 온갖 사소한 승리와 복음화의 자잘한 진전을 두고 새롭게 분발하고 헌신하게 하는 아름다운 전례와 함께 즐긴다.

이러한 모습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의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 자비의 성사인 교회를 밝혀주기를 바랐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순수한 영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을 안겨줄 이상적인 상태를 그린 것이다.

## 브라질: 한 시대의 종말

### BRASILE: La Fine di un'Epoca<sup>1)</sup>

피에르 드 샤랑트네 신부(예수회, 지중해 가톨릭 연구소)

심애정 켄마 수녀 옮김(성바로딸수도회)

지우마 호세프는 2016년 8월 31일 브라질 상원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2016년 5월 12일 직무가 정지되었고 부통령이던 미세우 테메르가 그의 권한을 대행해 왔다. 이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올림픽 경기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제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브라질이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새 대통령 또한 법적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9월 4일, 십만 명이 상파울루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세우 테메르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가 선거 없이 대통령직에 임명된 것이 불법이라 추정하는 것이다.

부패에 대한 소송과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이번 해임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정당 간에 벌어진 매우 폭력적인 충돌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관습적인 과두정치 세력과 신자유주의 세력이 대대적인 비리 척결 작전 '라바 자투'<sup>2)</sup>와 공조해 정부 권력을 장악했다.

이 일을 더 분명히 보기 위해선 수십 년을 거슬러가서 당시 부패 상황과 톨라 다 시우바가 대통령에 당선된 2003년에서 2010년까지 노동자 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상황, 그리고 그 후의 붕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독재 권력에서 파생된 여러 사건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 이 광활한 나라의 다양성을 알아야 한다.

1) *La Civiltà Cattolica* 2016 IV 156-164 | 3992 (22 ottobre 2016)

2) '세차'라는 뜻을 가진 '라바 자투(Lava Jato)' 작전은 다양한 부패 사건과 자금 세탁, 정당들의 비자금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 지정학적 복합성

미국이나 중국만큼 광대한 브라질에는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같이 천만 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가 있고, 2억 4백만 인구가 특히 남동부와 북동부 해안에 밀집해 있다.

브라질 국민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광활한 영토에서 일하려고 전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온 많은 이민자들 때문이다. 원래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오늘날 30만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의 먼 후손인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이 천오백만 정도 있다.

1494년의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가 분할된 후 3세기 동안 포르투갈 지배를 받은 브라질은 1822년에 독립을 획득했다. 이 긴 식민 통치 기간에 브라질은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수많은 노예가 일으킨 여러 차례 소요로 출렁거렸다. 이어서 이 나라는 제국이 되고 그 다음은 1889년까지 군주국이 되었다. 1889년 공화국의 도래는 대지주들의 등극과 유럽에서 계속 들어온 이민과 맞물린다. 독재 정권에 이어 들어선 인민당 정권은 1964년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20년 이상 집권했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1985년에 시작되었는데 외채, 인플레이션, 부패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직면해야 했다. 경제 불안은 1985년에서 1994년 사이 10년간 열두 번이나 재무장관으로 교체된 각료의 숫자로 분명해진다. 자유주의 경향의 유명한 경제학자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가 개혁을 촉진해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이 네 자리 숫자에 멈추는 데에 성공하면서 성장을 재개했다. 하지만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희생이 따랐다. 당시 노조 활동가이자 노동자당 창당 멤버 중 한 명이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가 대통령에 선출된 것은 2003년이 되어서였다. 그는 이미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세 번이나 떨어졌던 인물이다.

이 나라의 광활함과 대지주들의 지배를 받은 사회 구조로 인해 국민들은 평온하고 민주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폭력은 적대 세력들 사이에 늘 존재한다.

## 부패가 지속된 전통



브라질의 정치 활동은 대토지 소유 계급과 군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은 협상으로 오랫동안 활기를 띠었지만, 민주적 법과 인권 존중은 뒤로 밀려났다. 재정비용을 치러야 하는 이 정치협상 관례는 모든 차원의 선거에서 이뤄졌다. 이런 까닭에 부패가 일반화된 것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브라질 국회의원의 58%가 부패로 기소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기구는 브라질의 청렴지수가 세계 76위라고 한다. 1992년에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는 부패 혐의 때문에 공화국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지만 후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오늘날, 에두아르도 쿠냐 하원의장은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관련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헤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장도 같은 소송에서 수사를 받았다.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모든 성향의 정당에 자금을 조달한다. 이 회사는 1953년에 설립되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90년대에 페트로브라스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다가 후에 룰라 대통령 때 다시 정부 감독 아래 놓였다. 노동자당과 그와 연정을 맺은 이들이 이 회사의 주요 경영진을 임명했다. 그들 중 몇 명은 회사 기금을 부도덕하게 집행하기 시작했다. 다른 기금은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자금 조달은 마치 비가 쏟아지듯 이루어졌다.

비리 척결 작전 ‘라바 자투’는 화약가루에 불을 던졌다. 세르조 모로 판사가 2014년 3월에 먼저 돈 세탁을 반대하기 위해 시작한 수사에서 페트로브라스와 몇몇 거대 건설회사, 그리고 공공 노동 회사인 브라질 항구 터미널(BTP)을 둘러싸고 조직된 부패 시스템이 곧바로 발견됐다. 노동자당의 의원들도 연정을 맺은 다른 당들의 의원들처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곧 179명이 기소되어 93명이 처벌되었다. 다국적 그룹인 BTP의 회장인 마르셀로 오데브레히트는 19년 감금형을 선고받았다. 부당 횡령 액수는 수십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

2016년 3월 브라질 대법원은 하원의원 48명에 대한 수사를 승인했는데 그중에도 룰라도 있었다. 심판 기관의 활동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충분한 독립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 여론이 이 노력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 롤라의 변혁

정치는 부패하고 지주 계급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브라질의 북동부 빈민 지구에서 올라왔다. 선반공 노동자 롤라 다시우바의 소리였다. 그는 2003년 국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노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었으며 기존 정당 후보들을 제치고 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는 변혁을 시도해 브라질을 세계 경제 주역 중 하나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곧바로 사회 정책에 뛰어 들었다.

롤라는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놓여 있는 가난에서 탈피하려고 애썼다. 혜택을 입지 못한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대학을 개방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중산층에 진입하도록 도와 브라질을 개선하는 동력이 되게 했다. 이 활동의 규모를 상상해 보려면 브라질 대도시엔 눈에 보이는 데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판자촌’을 다녀 봐야 한다.

롤라 정권은 특히 2004년부터 가난을 타파하겠다는 주목적을 가진 ‘볼사 파밀리아(가족 지원금 정책)’라는 정책을 마련했다. 극심한 가난에 처한 천이백만 가구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급자는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했다. 그것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을 하라는 것이다. 여성에게는 이외에도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 특히 출산 준비 프로그램에 참가하라고 요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4백만 정도의 가구는 이 정책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볼사 파밀리아’ 영향으로 실제로 극빈 가정이 소외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자녀 교육이 보장되었다.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가 대단하고 수백만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됨과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sup>3)</sup>가 있다.

다른 사회 정책인 ‘포미 제로(굶주림 제로)’는 나라에서 기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가난한 가정들에 주어진 여러 도움과 더불어, 수돗물을 사용하고 싼 값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균형 잡힌 영양을 취하도록 교육하고 비타민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 여러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

3) 특히 다음을 참조. L. Mourão - A. Macedo de Jesus, «Bolsa Família (Family Grant) Programme: an analysis of Brazilian income transfer programme», in *Field Actions Science Reports*, Special issue 4, 2012 ([http:// factsreports.revues.org/1560](http://factsreports.revues.org/1560)).

룰라의 국정 운영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의 정책만큼이나 모순적이다. 그는 매우 강력한 사회 정책을 지지해 인구 중 가장 가난한 계층을 도와주었는데, 그의 전임자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의 관례를 따른 자유주의 경제 정책 또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경기 변동에서 드러난 결과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sup>4)</sup> 브라질이 깊이 변화된 것이다. 세계 경제 지위가 13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다. 부채에서 벗어나 채권국이 되었다. 2천8백만 명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났고 3천9백만 명이 중산층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 결과에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약속을 많이 한 농업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 없는 농민에게만 국유지를 양도하는 개혁, 곧 ‘토지 없는 이들의 운동’은 잊혀졌다. 룰라는 농업과 산업을 결합한 정책에 착수하여 유전자 변형 농산물 집중 재배가 확장되었다. 그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재정 이득과 거대 경제 지수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이것은 엄청난 사회 개혁을 희생한 대가로 이루어졌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려나서 2008년에는 마리나 시우바 환경부 장관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룰라에 대한 평가는 불분명하고 역설적이지만, 빈곤에 대항한 투쟁에서 거둔 진보는 실제적이었고 구체적이었다.

#### 대통령직에 오른 첫 번째 여성

4년 연임 후에 미국에서 그렇듯이, 룰라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우마 호세프를 선택해 2010년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게 했다. 지우마 호세프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였다. 그는 1964년에서 1985년까지 브라질을 이끌었던 군부 독재에 항거했고, 약 3년간 수감되었으며 게릴라 운동에 참여했다고 고문당했다. 지우마 호세프는 당선 초기에 인기를 많이 얻었다. 룰라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시도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대통령직은 위태로워졌다. 경제 성장은 저조해진데다 다수를 확보하려고 보수 정당들과 의심스러운 정치 동맹을 맺었으며, 근본주의 종교단체가 그의 대통령직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분명, 그토록 이질적인 정당들의 연합은 오래갈 수 없었

4) 참조: «Bilan économique et social des années Lula da Silva», in *Mediapart* (online), 25 marzo 2013.

다. 게다가 노동자당은 조금씩 편향주의와 부패, (2005년에 있었던) 국회 투표 매매와 같이, 다른 정당들과 같은 죄로 더럽혀졌다.

무엇보다 그의 대통령직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임기 첫 4년간의 경제 성적표였다. 2014년에 브라질에 불경기가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7.5% 성장했던 브라질 국내 총생산이 0.6%로 감소한 것이다. 그 충격으로 인한 외상은 격렬했다. 세계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새로운 중산층을 직접 타격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브라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경기 변동, 중국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특히 아르헨티나의 어려움은 이런 경기후퇴의 원인 중 일부분이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세 감속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물라는 석유 그룹 페트로브라스와 몇몇 거대 건설회사, 그리고 공공 노동 회사가 연루된 부패에 관여했다고 기소되었다. 물라에 대한 기소, 그리고 전임 대통령인 그가 건설 회사로부터 아파트와 별장의 형태로 받은 선물로 인한 고소가 확증될 경우, 그는 영원히 정치 현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필연적이었던 브라질민주운동당과 결별로 지우마 호세프는 소수당으로 밀려났고, 브라질민주운동당 당원인 부통령이 나라를 이끌 수밖에 없게 되었다.

### 고통스러운 해임

지우마 호세프의 두 번째 임기는 왕국의 종말 같은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소속당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에 대한 기소에 직접 연루되었다. 기소에 연루된 당이 노동자당만은 아니지만 그와 연정을 맺은 브라질민주운동당과 함께 노동자당이 첫째 과녁이 되었다. 국내에 대규모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노동자당은 아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급진 좌파는 노동자당이 브라질 정치의 관계적인 행위를 평준화된 듯 답습한 것을 고발했다.

전임 대통령 물라가 신뢰성을 잃었기에 2016년 10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그가 지지한 후보들은 진정한 ‘죽음의 입맞춤<sup>5)</sup>’을 받게 된다. 73%의 선거인들이 전

5) 참조: C. Gatinois, «Au Brésil, la descente aux enfers du PT», in *Le Monde*, 2 septembre 2016, 2.

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sup>6)</sup> 물라 없이 노동자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 12월 초반에 지우마 호세프는 그의 재선 이전에 재정 '적자'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탄핵 소송이 시작되었다. 전체적인 여론은 이 소송을 지지했다. 대통령의 인기는 10%대의 지지율로 떨어졌다.

2016년 5월 12일 호세프는 사실 면직되었지만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그의 국정 운영과 부패 기소에 관한 수사를 허가했다. 8월 29일에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회 앞에 나서서 자신을 대항해 일어난 반란과 음모와 불의를 비난하며 자신의 무죄를 선언했다. 또한 자신의 경제 실정을 세계 경제 위기 탓으로 돌렸다.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상원 투표에서 삼분의 일만 확보하면 됐다. 하지만 그 표를 얻지 못했다.

8월 31일, 61명의 상원의원이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에 찬성하고 20명이 반대했는데, 찬성자 중에는 그 또한 탄핵되었던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가 있었다. 투표는 브라질 국민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는 여론조사의 경향과 같은 선상에 있었다.

탄핵 투표 전에 진행된 심리가 텔레비전에 중계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브라질 정치의 모습이 드러났다. 여론은 이에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달이 지나도 주도권을 다시 잡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포함한 정치 전반에 대한 비판에 기대고 있었다. 나라의 재정 '적자'를 숨기려 한 의지뿐 아니라 사실 오류와 무능력, 의회 내에서 굳건한 반대를 끌어내지 못함 같은 정국 운영 전체가 처벌받아야 했다. 반대 세력 자체가 술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기에 대통령의 부패를 지나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까닭에 노동자당의 정책 전반을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난다. 탄핵은 '정치 공작'과 권력의 모래 속에 가라앉아 버린 사회 개혁과 변화 시도의 종말을 기록한다. 노동자당은 오래 전부터 그 역동성과 정치활동을 포기했다. 물라의 좌파는 자기 스스로에게 충실하기 위해 현대화되고

6) 참조: 같은 글.

깊이 개혁되어야 한다. 우파는 테메르와 함께 권력을 다시 쥌 준비가 되었다. 테메르는 자유주의 정치로 되돌아가기 위해 많은 사회 정책을 그만둘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시작은 벌써 속임수로 가득하다. 장관 두 명이 수사조작 의혹에 연루되어 사임해야 했기 때문이다.

### 교회의 고민

2013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호의와 열정으로 세계청년대회가 열렸는데, 이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교종직 수락 이후 ‘첫 해외 사목 방문 무대’이기도 했다. 지우마 호세프도 교종을 환대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다르다. 2016년 4월 15일자 문헌에서 브라질 주교회의는 24쪽에 달하는 긴 글을 공식발표했다. 이 문헌은 경제 상황에 대한 엄정한 진단을 담고 있으나 그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수요와 정치 잠재력 자체를 무시하는 시장과 소비 원칙을 문제 삼아 논의한다. 이 문헌은 토마 피케티와 불평등 발전에 대한 그의 분석을 인용했다. 공동선을 생각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진보란 있을 수 없음을 기억시킨다.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한 공동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 윤리적인 토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에서 이 문헌은 정치기관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세계적 정치 권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베네딕토 16세의 생각을 다시 다루는 것이다. 용기 있고 많은 수고가 담긴 이 문헌은 교회의 사회교리 전통 전체를 토대로 삼았는데, 특히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교종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 전인 2016년 8월에 브라질 교회는 거대한 스포츠 향연이 복음화를 쇄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했다. 경제 사회 상황 앞에서 교회가 지닌 염려도 감추지 않았다. 위기 전에 호의적인 경기 변동이 지속되던 몇 년간 희열 속에서 올림픽 경기를 유치한 날로부터 많은 것들이 나빠졌다. 부패가 있었고 야당들은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붕괴시켰다. 리우데자네이루 대교구장인 오라니 주앙 템페스타 추기경은 그의 입장에서 “사회적 재난”을 선언했다.

독립 기념일인 2016년 9월 7일은 브라질 주교들이 “윤리와 도덕적 가치 부재는 정치와 경제, 사회의 깊은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회였다. 브라질

주교회의 농어촌환경사목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데,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내고 지우마 호세프를 거슬러 시작된 소송에서 “쿠데타”가 있었다고 고발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인권과 땅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논란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보편교회의 전통 속에서 교회는 국가의 상황에 직면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재확인했다.

종교, 테러리즘, 전쟁

부부와 시대적 도전

스웨덴 사목방문을 앞둔 교종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 종교, 테러리즘, 전쟁

### RELIGIONI, TERRORISMO E GUERRA<sup>1)</sup>

피에르 드 샤랑트네 신부(예수회, 지중해 가톨릭 연구소)

임숙희 레지나 옴김(영성신학 박사)

국제적인 현상 안에서 종교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종교는 인도부터 이슬람 국가, 미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문화적 콘텍스트이다. 종교는 다른 어떤 ‘하드 파워’보다 잠재적으로 더욱 강력한 ‘소프트 파워’이다.

작년 이 잡지에서는 종교와 외교 관계의 구체적인 사례로 이탈리아와 교황청의 관계를 언급하면서<sup>2)</sup>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곧 1911년에 일어난 리비아 전쟁과 비오 12세의 유럽 건설에 관한 토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새로운 ‘소프트 파워’ 형태로의 모험을 무릅썼는데, 그것은 바로 영향과 의식이다.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많은 것들이 바뀌었음에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그리고 2015년 12월 2일 미국 샌버나디노 San Bernadino 공격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이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이해하려면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게 됐다. 테러행위를 전쟁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전쟁인가? 이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몇 년 간 자주 발생한 공격에 관해 ‘제3차 세계 대전’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사용됐다.<sup>3)</sup> 이런 국제 관계의 변화는 모든 종교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종교가 이런 유형의 충돌에 개입되는 것은 테러를 자행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1) *La Civiltà Cattolica* 2016 III 497-506 | 3990 (24 settembre 2016)

2) 참조: P. de Charentenay, «Religione e politica estera: il caso Italia», in *Civ. Catt.* 2015 II 238-246.

3) 파비오 페티토 Fabio Petito의 콘퍼런스 발표문 «Religion and Diplomacy: A new strategic pillar for a comprehensive mediterranean dialogue», Roma, 17 marzo 2016.

종교를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에 직면할 때 종교 간의 협력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

이 글에서는 먼저 ‘제3차 세계 대전’이라는 표현을 분석해야 한다. 이 용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종교가 평화 추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전쟁으로서 테러리즘’: 잘못된 정의

테러리즘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전쟁은 파악 가능한 적대관계이며, 일반적으로 각자 자기 군대를 보유한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무력을 행사해서 충돌을 일으킨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충돌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에서 발생한다.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복하려는 의도로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영토, 혹은 두 나라 국경에서 일어난다. 이 충돌은 전쟁 선언이나 군대 파병 권한을 가진 국회의 투표로 시작되고, 교전국 중 하나의 항복으로 끝난다. 협상 후에 양측에서 서명하는 조약이 이어진다. 이러한 조약이 강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테러 공격은 이런 의미의 전쟁은 아니다. 테러 공격은 누가 그런 행위의 책임자인지 알 수 없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스스로를 전사라고 여기는 민간인들이 테러를 감행하고, 무엇보다도 이 전사들은 다른 민간인들을 공격한다.

테러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언하는 절차도 없다. 테러 공격은 어떤 장소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수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 우리는 15년 이상을 테러 공격과 함께 살고 있지만, 테러를 지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테러 목표로 삼는 적대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2011년 5월 2일에 파키스탄에서 빈 라덴 Bin Laden을 사살했지만, 그를 죽였다고 해서 이런 테러의 전반적인 양상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테러 행위에서 더욱 복잡한 것은 지역 전쟁과 테러의 글로벌화가 혼합됐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리아와 리비아에

서 명확하고 파악 가능한 적대자와 싸우는 지역 전쟁—이시스ISIS 또는 대시Daesh—과 알카에다Al Qaeda와 이시스, 또는 보코 하람Boko Haram, 아크미Aqmi 등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닌 여러 집단이 자행하는 테러의 글로벌화가 뒤섞여 있다.

시리아와 리비아의 지역 전쟁은 어느 영토 전쟁처럼 다뤄야 한다. 이라크 무장 군들과 국제적인 연합은 이시스의 무력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든 공격하면서 이시스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 팔미라와 팔루자 수복 후 모술을 손에 넣어 이라크와 시리아의 적대자들에게서 위 도시들을 해방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일말의 토론이나 협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시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그들의 정체가 파악되면 제거해야 한다.

시리아 아사드Assad 정권과 반체제파의 충돌과 관련된 시리아 평화 조약은 상황이 다르다. 시리아 무력 충돌은 대시와의 전쟁은 아니다. 대시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의 무력 충돌은 위에서 언급한 전쟁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참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전쟁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전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제적인 연합이 이시스를 물리치면 충돌을 끝낼 수는 있어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 행위를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 지역 전쟁은 테러리스트들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알카에다는 어떠한 경우든 영토 요구와는 별개로 행동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시스는 그런 시각을 바꿨다. 그들은 행동할 수 있는 토대를 갖기 위해 영토를 요구하고, 수년간 영토를 확장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알카에다는 기존의 전쟁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 전사들을 그 지역에 끌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토를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힘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모든 군비를 갖춘 군대를 창출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군대가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약점으로 작용한다.

한편으로 세계적 테러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목표물이 대상이다. 이것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

상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해서 공격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서구 국가와 중동 출신이고, 세계 모든 곳(코트디부아르, 터키, 말리, 프랑스, 레바논, 이집트, 미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테러 행위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은 조종당하고 있는가? 그 결정은 지역 차원에서 내려진 것인가? 그들은 알카에다와 이시스는인가? 이 두 집단은 서로 경쟁 관계인가? 몇 가지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알 수 없다.

자살 폭탄 공격은 폭력에 대한 이해를 더욱 힘들게 한다. 가해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그들의 죽음은 관련된 네트워크의 기원과 전략에 대한 각종 연구를 힘들게 한다. 올란도의 경우처럼 외로운 늑대의 소행일까? 혹은 파리처럼 조직적인 지하 군대의 공격인가?

이 충돌의 특별한 점은 이시스와의 지역전쟁과 세계 테러 위협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토 정복과 새로운 ‘칼리파’, 즉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희망에 사로잡힌다.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하고, 천천히 다른 곳으로 확장해 가면서 서구를 상대로 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유토피아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테러의 우발적인 행위로 설립되는 국가를 지향하는데 아주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유토피아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이시스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 행위들이 서구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는 동안에도 테러리스트 국가의 확장은 국제적 측면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테러 행위는 세계 전쟁은 아니다.

### ‘전쟁으로서 테러리즘’: 위험한 정의

‘제3차 세계 대전’이라는 표현은 위험하다. 전문적이면서도 직설적인 무기 사용과 군대 동원으로 테러리즘을 소개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시George W. Bush가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할 때 일어난 일이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은 테러를 테러로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테러리스트들 중 많은 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신자였지만, 외세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할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전문적인 의미가 없다. 이것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전략적 표현이다. 사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을 목표로 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테러 공격들이 일어나도록 자극했다. 2016년까지 뉴욕, 발리, 샤름엘셰이크, 파리, 베이루트, 브뤼셀, 다카와 다른 많은 도시들에서 테러 행위들이 일어났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정치 영역에서는 맹목적인 폭력에 대해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적대자를 지목하지 않고 테러행위로 이끈 진짜 문제를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파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테러와의 전쟁”은 끝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싸움으로 우리를 유도한다. 테러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적대자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와 투쟁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착각과 거짓 희망을 심는다. 현실을 부정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방해한다.

테러리즘은 특별한 성격의 충돌이다. 일반적인 전쟁보다는 내전에 가깝다. 오로지 테러리즘에 대해 연구할 때만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피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글로벌화된 테러리즘’에 대해 말해야 한다.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면 세계 대전보다 강도가 낮은 ‘세계적인 내전 *una guerra civile mondiale*’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종교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다. 왜냐하면 이 내전에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문화적, 종교적 차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세계적인 내전

이 세계적인 내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는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테러 공격의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

는 테러가 구조적인 상황의 산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개인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테러 행위의 구조적 원인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것은 이런저런 날에 조약을 맺거나 토론을 거듭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 테러리즘의 기원은 다양하다. 이슬람 세계의 극단적인 집단들은 80년대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후 테러 행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알카에다는 정치적 목적과 종교 전파를 결합해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그들의 행동반경을 확장했다. 알카에다는 중동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됐다. 시리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이라크 전쟁과 사담 후세인 정권 파괴가 테러리즘 확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시스는 2013년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에서 (알카에다와) 정치적, 종교적 혁명의 같은 기반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이 운동들의 기원은 굴욕감, 불의에 대한 분노, 침략에 대한 반응과 자신의 정체성 탐구와 연결된다. 이 운동들은 문화와 정치가 ‘혼합’된 것이다. 이것은 이 세계 내전에 왜 종교가 현존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운동의 주체들은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세계를 상대로 복수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파르네시나Farnesina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sup>4)</sup> 바티칸 외무 장관Segretario per i Rapporti con gli Stati 폴 갤러거Paul Gallagher 추기경은 이것이 그릇된 해석임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역사와 종교 전쟁’을 피상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테러리즘은 종교보다는 정치와 연관됩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피상적인 해석은 종교가 전쟁과 충돌의 원인이라는 반복된 비난과, 종교 없는 세상은 갈등 없는 세상일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확신을 갖게 합니다.”

테러리즘은 정치적인 갈등의 표현이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테러리즘을 양산한다고 의심하는 국가에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곤 하였다. 이라크 전쟁과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해 리비아에 개입한 것이 그 사례다. 그러나 그런 개입은 오히려 테러 행위를 확산시켰다.

4) ISPI(Istituto per gli studi di politica internazionale: 국제정치연구소)와 이탈리아 외무부가 조직한 콘퍼런스(2016년 3월 17일)에서 발표한 자료. 각주 2항 참조.

이는 또한 오바마가 왜 시리아에 직접 개입을 원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한다. 오바마는 이라크와 레바논 신드롬에 시달렸다. 개입은 사람들에게 테러리스트에 합류하는 또 다른 동기를 제공해 세계 내전을 확산시킨다. 다양한 개인적 이유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동기를 부추긴다.

### 테러리즘에 가담하는 개인의 경로

우리는 여기서 테러리즘의 개인적 측면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서구, 곧 종교가 개인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테러리즘에는 무기를 들거나 군대 소집에 응하라는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자발성에 토대를 두고 일어난다. 여기에서 문제는 왜, 어떻게 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테러리스트가 되는지다.

그런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sup>5)</sup> 요약하면 테러리스트들은 각기 다른 환경 출신이며, 자주 고립된 이들이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급진적 무슬림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발견되는 것들을 찾는다. 그들은 특정 지점에서 과격화되면서 자신의 상징으로 이슬람을 사용한다.<sup>6)</sup> 이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무슬림 2세대다. 그들은 부모의 나라와 새로운 나라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특정 공동체와 연결되거나 지지받지 않으며, 국가적 소속감도 없다.

그들은 불안정한 상황 안에서 고립돼 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면서 서서히 급진적으로 변한다. 시리아 여행이 뒤따른다. 그곳에서 그들은 적극적인 테러리스트가 되도록 세뇌당한다.

이것은 다른 국가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 세대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들은 어떤 종류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가? 이것은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런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가는 교육과 도시 계획, 경제 성장, 사회 서비스, 교육 도서 활동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 사회는 고립의 장벽을 깨고 공동체와, 이웃,

5)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G. Sale, «Isis e radicalizzazione islamista in Europa», in *Civ. Catt.* 2016 I 112-124를 참조.

6) 참조: O. Roy, «L'Islam è un pretesto», in *Internazionale*, 27 novembre 2015.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토대를 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

### 상황과 전략

이러한 대화가 필요한 나라의 문화는 서구의 급진화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에도 중요하다. 이탈리아처럼 문화가 종교와 가족 관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에서는 이런 대화가 더 쉬울 것이다. 프랑스처럼 종교가 공적 공간의 주변부에 속한 나라에서는 도시 계획이 아주 빈약하고, 도시 교외 지역에서 교육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탈리아의 종교적 상황은 이런 나라들보다 더욱 개방됐으므로 좋은 기회로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 사회의 과제이자, 또한 지방자치, 지역, 혹은 국가 차원의 행정 기관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학교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 대화 과정에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 외무부도 테러리즘이라는 드라마틱한 국제적인 문제가 국가, 시민 사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와 진지하게 협력해야 함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어떤 외교 조치도 다차원적 통합 없이는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테러리즘의 ‘글로벌하고 지역적인 해결책’을 펼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적 해결책을 위한 글로벌한 협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갈등의 일부인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주체들과 함께? 어떤 구성원들인가?

이것은 테러리즘의 분석과 해답 안에 다양한 종교를 포함하는 행동 전략으로 이끌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종교는 정부와의 공동 행정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 분야 활동에 속하는 학교들은 공공영역에 종교를 통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종교의 잠재적인 역할은 자주 상실되거나 단순히 거부된다. 종교를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세속성’의 특징인데, 공적 토론과, 테러리즘을 반대하는 공적 행동에 종교계 인사들의 주요 역할을 배제한다. 이러한 거부 방식은



이데올로기 원칙에 토대를 두는 각종 해결책의 한계를 내포한다.

### 종교 간의 대화

민간 사회가 종교에 더욱 개방된 상황에서 종교 그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들은 구체적 역할을 지녔는데, 젊은이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런 사례들은 종교적인 문제와 근접하기 때문이다. 갤러저 추기경은 이렇게 말한다. “종교적 차원에서 인간에 관해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요소들을 의식하는 데 공헌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종교를 문제로 여기는 것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종교가 더욱 결실을 맺는 방법 중 하나가 종교 간 대화다. 이것은 풀뿌리 차원에서, 본당 차원에서 근본적 방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화를 더 높은 차원의 그룹에게, 공적인 종교 간의 대화에 자주 위임해 왔다.

종교 간 대화는 중요하고, 더 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타우란 Tauran 추기경은 여기서 한계를 발견한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할 운명을 타고났다. 대화가 없다면 대안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와 이슬람의 대화는 겨우 이뤄졌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추기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대화는 지나치게 엘리트적이다.”

이 대화가 효과적이기를 원한다면 지역, 학교, 지방자치, 교회, 회당에서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1990년대 가톨릭 운동은 많은 장소에서 자유와 인권을 위해 일하며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종교 간의 대화에 집중하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이슬람 신자들과 협력하며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다. 첫째,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둘째, 젊은 시민들—이슬람 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더욱 가까이하는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종교인들과 인격적인 관계의 창조는 애덕 활동이나 사회활동, 또는 기도 모임을 통해 구체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까이 대화하며 여러 종교가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각자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가는 구체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과격한 종교운동과는 다른 종교의 얼굴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쇠신을 위한 행동이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관련이 없다면 글로벌한 대화의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지역 차원의 해결 방식은 종교 간의 관계라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 결론

종교 간 대화는 직접적으로 서구의 전략과 연관된다. 그리고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지도자들과 종교 공동체가 어떻게 정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비정부 조직이 폭력을 줄이고 격동의 상황에서 폭력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sup>7)</sup>

테러리즘이 생겨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중동 위기라는 현실과 맞물린다. 이 위기는 세계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들이 힘을 합쳐 높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시리아 분쟁 해결은 근본적 문제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분열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들이 정치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요소는 이슬람 내부의 분열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지중해는 남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 간의 대화에 중요한 자연적 배경이다. 지중해는 이미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곳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토론은 종교계에 더 개방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화와 정치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보다 낮고, 평화를 건설하는 세상을 위한 이런 토론들 안에서 종교들을 통합하도록 도울 것이다.

7) 각주 2항에서 언급한 파비오 페티토의 발표문 참조.

8) 예를 들어 MED(Mediterranean Dialogues: 지중해인들의 대화)가 매년 로마에서 열리는데 차기 모임은 ISPI와 파르네시나에서 2016년 12월 1일-3일에 개최될 것이다.

## 부부와 시대적 도전

### LA COPPIA E LA SFIDA DEL TEMPO<sup>1)</sup>

조반니 쿠치 신부(예수회,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홍보국장)

최근에 발표된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AL)<sup>2)</sup>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주제이다. 인류의 삶은 “가정과 출산, 사랑 이야기와 가정의 위기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폭력으로 얼룩졌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명력을 지닌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 첫 부분부터(창세 4장 참조) 신부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묵시 21,29 참조) 이르기까지 그러하다”(AL 8).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 측면에 머무르고자 하는데, 이는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시대에 부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다만 마법에 바탕을 둔 우연이나 행운의 문제이며, 존재에 대한 가장 강한 실망들의 문제라면, 각 시대의 문학들이 이를 어떻게 드러내고 강조할 수 있을까? 사랑은 시대 안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

“그들은 행복하게 만족하며 오래오래 살았다”

공연장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뮤지컬 「판타스틱 The Fantasticks」(1960)은, 모든 시대의 사랑 이야기들이 본디 가지는 **고전적인** 흐름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야기는 공연장에서도 유명한 희극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재조명되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오로와 프란체

1) *La Civiltà Cattolica* 2016 IV 114-130 | 3992 (22 ottobre 2016)

2) 프란치스코 교종,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 2016.3.19.

스카, 프리모와 티스베와 비슷하다.) 서로 사랑에 빠졌지만, 각자 집안의 금령으로 사귄 수 없는 두 젊은이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만남을 금지하려고 부모들이 세워 놓은 장벽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 장벽들을 넘어서려는 힘을 발휘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관계는 어려움들이 조화를 이루고 마침내 가족들이 그 관계를 승낙하려는 준비가 되었을 때 위기를 맞는다.

이 공연과 다른 공연들의 성공 여부는, 설정된 사랑 이야기들의 두드러진 측면들을 그 이상과 두려움 들 안에서 표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 이야기들의 결말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처럼) 대개 그 커플에게 비극적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학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대개 그 시작, 곧 사랑에 빠지는 것부터 사랑하는 남자 또는 여자를 힘겹게 차지하는 것까지 고집스럽게 다루지만, 무엇이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는지 결코 말해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만족하며 오래오래 살았다.”는 고전적인 결말은, 결국은 한 커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탈출구이다. 곧 가장 열정적인 사랑조차 스러지게 할 수 있는 날마다의 일상이 그것이다.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반대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혼인하였다면,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그리고 양말을 입고, 힘든 일을 하고, 변덕스러운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틀림없이 그것을 불멸의 작품으로 만들었던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기운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현실을 밀바닥까지 체험할 것이고, 이른 죽음으로 그들이 면제받았던 일상생활의 문제들과 지루함들을 함께 겪었을 것이다.<sup>3)</sup> 이러한 배경에서는 이야기가 그 매력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일상생활의 도전

이러한 이야기에서 이르게 되는 가르침은, 모든 장애가 거두어지고 모든 것이

3) 참조: V. Cesari Lusso, *Se Giulietta e Romeo fossero invecchiati insieme ... Vivere «felici e contenti» imparando a comunicare*(만일 줄리엣과 로미오가 함께 늙어 갔다면 ... 소통하는 것을 배우며 ‘행복하게 만족하며’ 사는 것), Trento, Erickson, 2007, 10.

가능해지면, 열정은 식고, 꺼져 버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교황 권고는 더 큰 계획으로 열정을 시간적으로 연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조금 강조한다. 더 큰 계획 안에는 열정 외에도, 덜 돋보이기는 하지만, 관계를 더욱 만족스럽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측면들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며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곧 대화하고, 서두르지 말고 안아 주고, 함께 계획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 우리 사회의 정신없는 속도나 의무적인 일에 쏟아야 하는 시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유익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단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뿐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AL 224)

서로가 모든 것을 곧바로 허락해 주는 것은 관계를 느슨해지게 하는데, 이는 서로 강렬하기는 하지만 지속 기간이 짧은 것들(신체적 매력, 열정 등)에 쏠리면서, 그만큼 결정적인 다른 점들을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나쳐 버린 것들을 합당하게 살펴보면, 자유와 선물이라는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 설익은 친밀감은 오히려 이 자유와 선물에 방해가 될 뿐이다.<sup>4)</sup>

이것이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고 나서 혼인하는 커플들이, 혼인한 다음에 함께 살기 시작하는 이들보다 결별하거나 자신의 혼인에 만족하지 못할 개연성이 훨씬 높은 주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것이 연구자들이 동거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표현으로써 이 문제가 그들의 기질이나 삶에 대한 전망에서 추정되는 개인차들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동거라는 사실 자체에 연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sup>5)</sup> 확실성에 대한 과도한 연구는 관계와 계획적인 능력을 약화시킨다.

4) “문제는 처음에 서로에게 눈이 멀어서 많은 것들을 숨겨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논쟁을 피하려다 보니 나중에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약혼한 이들이 저마다 혼인에서 기대하는 것,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도와주어야 한다.”(AL 209)

5) 참조: K. Paige Harden, «True Love Waits? A Sibling-Comparison Study of Age at First Sexual Intercourse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Young Adulthood»(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가? 첫 번째 성관계시의 연령과 젊은 성인시기의 낭만적인 관계에 대한 형제 비교 연구), in *Psychological Science*, September 25, 2012; E. Berscheid - H.T. Reis, «Attraction and close relationships»(매력과 친밀한 관계), in D.T. Gilbert - S.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2, Boston, McGraw-Hill, 1998, 193-281; M.Jay, «The Downside of Cohabiting Before Marriage»(혼전 동거의 단점), in *The New York Times*, April, 24, 2012.

셰익스피어는 이를 비극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에서 빛나는 대사로 표현하였다. 연인을 시험해 보고 싶은 클레오파트라에게(“만일 정말로 사랑이라면, 얼마만큼인지 저에게 말해 주세요.”), 안토니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평가될 수 있는 사랑에는 비참함이 있네.”<sup>6)</sup> 사랑은 계량화하려 할 때 죽어 버린다.

동거하기로 결정하면서 혼인을 거부하거나, 그 혼인을 무한정 미루는 것은 그 커플의 결속을 더욱 약화시킨다. 이에 함축된 법칙은 각자가 원하면 떠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법칙은 이 일이 무척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결합되어 있다. 이 두려움은 이 일이 자동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버린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두려움이 역설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데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잘 알려져 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결합은 혼인에 견주어 열배 높은 유대 해소 비율을 기록한다.<sup>7)</sup> 임무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이전의 여정에 견주어 질적 도약을 이루게 되며, 이는 계획될 수도 없는데,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커플의 지속성을 도와주는 요소들은 보통 처음 사귀는 순간에 무게를 두는 요소들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에 덧붙여야 할 것은, 혼인을 비용이 들면서도 중압감을 주는 업무로 여기며, 더욱이 비슷한 행보에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중산층 사회가 갖는 고유한 어려움들이다. “혼인 준비 기간은 하객 초대, 예복과 피로연 준비, 그리고 금전뿐만 아니라 힘과 기쁨을 고갈시키는 다른 많은 소소한 일들의 준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약혼한 이들은 그들이 부부로 함께 내딛게 될 커다란 발걸음을 준비하는 데에 전념하기보다는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부 사실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 사랑을 다른 이들 앞에서 공식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신에 많은 비용이 드는 혼인 예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혼을 한 이들은 절대로 그 예식을 거행하지 않

6) 셰익스피어,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Antonio e Cleopatra」, I, 1.

7) “혼전 동거는 장기간의 결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유대 해소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 왜냐하면 부부 생활을 짧은 기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왜 동거 생활이 혼인 생활보다 더 자주 깨지는지도 설명해 주고, 자유로운 결합들이 선행되었을 때에는 이 혼인들이 다른 경우들보다 훨씬 깨지기 쉽다는 것을 드러내놓기도 설명해 준다.”(A. L. Zanatta, *Le nuove famiglie*(새로운 가족들), Bologna, il Mulino, 1997, 39); M. Francesconi, «Divorzio e convivenza in Gran Bretagna. Quale futuro per la famiglia?»(영국에서 이혼과 동거. 가족들에게 어떤 미래가 올까?), in *Aggiornamenti Sociali*, 51(2000) 417-430 참조.

는 것이다.”(AL 212)

여기에 대해 교황 권고가 제시하는 도전은, 어렵지만 가정의 건강과 삶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수많은 현란한 제안들 앞에 놓여 있지만, 또한 대단히 매력적이기도 한 것이다. 사랑이 인생의 수많은 다양한 국면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커플이 시간 속에서 지속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 조직으로서 커플

심리학적 성찰에 따라 강조되면서, 대개 주목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측면 하나는, 가정을 조직적인 요소들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곧 모든 구성원들이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방법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가정의 특징들을 형성하는 데 협력하는 그런 조직 말이다. 부부의 원동력을 조직 안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가정을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화된 전체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상호작용이 갖게 되는 일종의 ‘조금 더’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없이는 개인들의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기준이 되는 지평을 뜻하는데, “그들의 결합에서 오는 결과는 독립적으로 고려된 요소들의 결과들의 합계로 축소되지 않는다.”<sup>8)</sup>는 것이다. 실제로, 조직적인 관계들 안에서는  $1+1=3$ 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세 번째 요소는 조직으로서, 각 구성원들에게 자의식과 의미를 부여해 준다. 이러한 질적인 도약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의 문제들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이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적인 접근의 첫 번째 결론은 관계 안에 하나의 순환적 인과 관계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 각자는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V. Mathieu, «Tipologia dei sistemi e origine della loro unità»(방법들의 유형론과 그들 결합의 원천), in *Memorie dell'Accademia dei Lincei*, Roma, 1994, serie IX, vol. IV, 91.



조직 안에서 어떤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요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누가 시작했니? 누구 탓이야?”라고 하는 전통적인 질문들 안에 표현되는 원인/결과 방식의 접근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조직적인 맥락에서는 A는 A이고, B는 B이다. 각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들, 또는 침묵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과에 이바지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눈에 띄면서도 매우 증가세에 있는 사례로 다시 시작하면, 가정 폭력 사건들에서 이 현상들이 자주 발견된다. 연구된 바에 따르면, 폭력을 겪은 이는 ‘반복 강박’이라고 불리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신을 학대했던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사귀거나, 자신을 폭행했던 바로 그 사람과 혼인하기를 선택하기까지 한다.<sup>9)</sup>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안에 얽혀 있는 역학들을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특히 실제적인 동기들은 계속해서 의식하지 못하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이 요소들은 부부 관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 이런 역학들이 명료화되지 않는 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다음에 있을 새로운 유대들에서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당사자는 앞선 경험들에서 거의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모호함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각 개인의 공헌으로 실현되는 조직의 용어들로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탓을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는,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공헌도를 식별하고, 자주 문제의 핵심이 되는 자동주의와 수동성을 깨부수는 순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론적 모델은 1960년대 미누친 S. Minuchin이 연구하였고, 50여 년 동안 서로

9) 참조: R. Norwood, *Donne che amano troppo*(너무나 사랑한 여인들), Milano, Feltrinelli, 1998에서 논한 사례들.



다른 문화를 가진 26개국에서 시험되었는데, 놀라운 유사성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저항들도 있었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위에서 강조된 이분법적 현상으로서, 곧 병약한 구성원, 가정불화에 책임 있는 ‘속죄양’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조직론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 전망을 뒤집어 보게 된다. 가족들이 제시하는 문제 제기는 실상 다른 문제들, 더 감춰져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들을 덮어 버린다. 실제로, 속죄양이 개선되면, 그 조직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참여자들의 역할에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다른 측면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조직이 재정비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록 더 힘들고 미지의 세계일 수 있지만, 새로운 여정을 걸을 수 있다. “우리의 주장은, 가정들이 상호 파괴적인 모델들에서 얼마나 정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제한하면서도 또한 수월하게 하려고 그들이 받아들인 전망들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려면, 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단지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야기들의 저자들로 여겨야 한다고 확신한다.”<sup>10)</sup>

달리 말하면, 관계의 질을 위해서 정말로 결정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사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다. 목적은 특히, 상황을 좋은 것/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용어들로 읽고 그 안에 갇혀 버리고 마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또한 파괴적이기도 한 이러한 방법에서 비판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황 권고에서 명확하게 강조되었다. “혼인의 삶의 모든 새로운 단계마다 여러분은 마주 앉아 합의한 것을 다시 절충하여 승자도 패자도 없이 배우자 둘 다 승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안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부부 두 사람이 가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가정이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지니기에 각각의 혼인 결합은 서로 다르다.”(AL 220)

### 부부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가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10) S. Minuchin - P.M. Nichols - W. Lee, *Famiglia, un'avventura da condividere. Valutazione familiare e terapia sistemica*(가족, 공유해야 할 모험. 가족적인 평가와 조직적인 치유), Torino, Bollati Boringhieri, 2009, 17.

문제들이다. 교종은 미래의 혼인 생활을 위해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커플들 사이의 긴장의 경향을 강조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로 혼인을 한다. 그들은 그저 함께 즐기며 함께 경험을 하면서 그들 자신을 보여 주고 상대방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 도전을 회피한다.” (AL 210) 밑바탕에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상황을 말하는데, 커플들이 쾌감을 주는 단기간의 매력적인 면들에 집중하면서, 더 두드러지지 않는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으로 보이는 면들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혼인 생활을 연구한 이들에게서 명백해졌다. 17세에서 69세 사이 연령의 젊은 부부들과 성인 부부들을 다룬 연구에서, 10가지 기초적인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것들의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들은 관계의 가능한 정체성과 발전, 그에 대한 기대와 흐름들을 읽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측정이 중요한 것은 부부 생활의 첫 번째 국면에서 돋보이는 요소들(신체적 측면, 매력, 쾌락, 성적인 결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기울어져 가고, 다른 매개체들, 곧 가치들, 지식, 타인에 대한 이해, 종교성, 자녀 교육, 경제적 형태의 필요성 등의 존재를 요구하게 된다. 이것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제대로 관심을 끌기 어렵고, 혼인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도 부차적인 것으로 머문다. 이것들의 결핍은 위기의 순간에 느끼게 된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 다른 여정들을 아는 것이며, 이미 선택한 것을 여러 번 다시 성찰하게 한다.<sup>12)</sup>

만일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쉽고도 자발적이었다면, 그 뒤에도 조금은 결정과 책임의 결실이 된다. 첫 번째 시기, 특히 만남이 아름답고 신선할 때에는, 또한 겉으로는 부수적으로 보이지만 그다음 시기에는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나는—위에도 강조된 것과 같은—다른 차원들을 관찰하기에도 적합한 시기이다. 함께 즐겼다는 것

11) 이것을 중요도에 따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면의 소통/지식; 2. 이해/평가; 3. 관용/수용; 4. 유연성/변경 가능성; 5. 가치들/능력들; 6. 가족/종교; 7. 재정 문제들 /가사 노동; 8. 신체적 매력/ 열정; 9. 호감/우정; 10. 충실성(R. Sternberg, *La freccia di Cupido. Come cambia l'amore. teorie psicologiche* (큐피트의 화살. 사랑은 어떻게 변하는가. 심리학적 이론들), Trento, Erickson, 2014, 177-178 참조).

12) “사랑이 단지 끌림이나 모호한 애정이라면, 이러한 애정이 약해지거나 육체적 끌림이 줄어들 때에 부부는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AL 217).

은 중요하지만 서로를 알기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고, 이 얇이 부족하면 이후 친밀감의 영역이 줄어들며 부부 결합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바탕들이 요청될 때에 그 영향력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면의 한계로, 시간의 흐름 안에서 부부를 건강하게 지켜 주는 데 중요한 능력들을 설명하는 것으로만 제한한다. 바로 내밀한 소통의 표현으로서 경청이다.

이는 근본적이면서도 책임이 따르는 능력이고, 교육적인 수준에서는 흔치 않은 것이다. 학교에서는 읽고 쓰고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르치지만, 경청하는 것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것은 관계의 질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주의 깊게, 감정을 담아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청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을 알고 도움을 주는 큰 결과들을 얻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부부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질병이나 무능력 장애로 삶에서 무겁게 상처를 입은 이는, 주의 깊게 애정을 가지고 경청해 줄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만남이 삶의 변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만남은 사물들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었다.<sup>13)</sup>

경청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강한 동기가 있어야 하고, 특히 다른 이를 위해 시간을 내어 줄 배려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사무적 용무들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관계는 자신의 활동들을 더 잘 수행하는 데 자극이 된다. “언제쯤 배우자와 함께 하는 일을 성공하는 것이 출세에 성공하는 것만큼이나 절실히 필요하게 될까를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시간을 만들게 하지? 이를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다. 행복한 부부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 우리는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의 흥미를 느끼지 않은 사람들과 지냈던 밤들을 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지내보려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행복한 부부들은 모든 것

13) 예를 들어, 이것은 종종 운동 장애와 언어 장애가 있는 이들의 모임인 볼로냐의 Accaparlante회의 창립자인 Claudio Imprudente의 경험이다. 그는 자기 존재 안에서 일어난 전환점이 그가 자기 옆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들어주면서 자기를 그들의 계획들 안에 합류시켜 준 사람들을 발견한 때라고 표현한다(C. Imprudente, *Una vita imprudente. Percorsi di un diversabile in un contesto di fiducia* [현명하지 못한 삶. 신뢰의 맥락에서 본 잠수부의 여정], Trento, Erickson, 2003 참조).

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sup>14)</sup>

### 부부생활의 연속 단계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의 역할

당연히 순환적인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관계가 더 만족스럽게 되고, 배우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식을 깊게 하면 할수록, 다양한 관점들을 만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어려움들은 분열의 계기가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들을 포함한 도전의 계기가 되어, 부부 삶의 질과 건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행복한 관계로 살게 되면, 우리는 긍정적인 면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면들은 축소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관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면, 그 반대의 경향을 띄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들은 긍정적인 것들보다 실현 차원에서 예언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곧 부정적인 면들이 관계를 파괴할 힘이, 긍정적인 면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sup>15)</sup>

갈등은 삶의 한 부분이며, 부부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 내고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그 바탕에서로 상대에게 다가가려는 뜻이 있고 관계가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더욱 그렇다. 이에 관하여 더 민감한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가능성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 때, 그것을 다양한 동기로 정당화하는데, 대개 의지와 관계없는 것들(시급함, 피곤함, 경솔함, 표면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당함을 겪게 되면,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행한 중대한 행동으

14) N. Branden, «Un punto di vista sull'amore romantico»(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관점 하나), in R.J. Sternberg - M.L. Barnes (eds), *Psicologia dell'amore*(사랑의 심리학), Milano, Bompiani, 2004, 254; AL 225 참조: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전혀 모르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각종 기기에 빠지게 되거나, 자기가 몰두할 다른 일을 찾아내거나, 다른 이의 품을 찾거나, 부부가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달아나게 된다.”

15) R.J. Sternberg, *La freccia di Cupido*(큐피트의 화살), 196; N.S. Jacobson - W.C. Follette - D.W. McDonald, «Reactivity to positive and negative behavior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ed couples»(고민하는 부부와 고민 없는 부부의 긍정적 부정적 행동에 대한 반응), i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1982), 706-714 참조; N.S. Jacobson et AL, «Attributional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ed couples»(고민하는 부부와 고민 없는 부부 안에서의 기여 프로세스), i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1985), 35-50 참조.

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를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자신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부에게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혼인을 인내와 이해와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점차로 따지면 원망하는 시선, 서로의 이익과 권리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기주장과 경쟁과 자기변명으로 변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AL 218)

여기에, 남성과 여성의 심리학에서 고유한 감성의 차이를 덧붙여야 한다. 여성의 접근은 전체성에 더 묶여 있고, 문제에 직면해서는 특별히 확신을 갖고자 한다. 남성은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sup>16)</sup> 이러한 차이는 소통의 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나타낸다. 남자들은 보통 한 번에 하나씩 말하고 여자들은 한꺼번에 모두 말하면서, 서로 소통한다. 삶의 공통 여정을 다시 들여다보고자 잠깐 멈추고서 함께 시간을 가지며 삶을 바라보는 기준들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근본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구조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동기와 협력에 관하여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이해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은 서로 용서하는 능력이다.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심각함이 조금씩 다른 공격적인 상황들을 주고, 그 상황에서 애정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잠재적인 방식으로 중간에 끼워 넣었을 때, 그들이 받은 공격의 형태와 상관없이 용서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정적인 친근함이 용서하는 것을 도와준다.

부부관계에서 용서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부부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대를 강화시켜 준다. “지난 세기 말 미국에서 실시된 광범위한 여론 조사를 보면, 행복하게 혼인한 지 20년이 넘는 부부들은 그들의 혼인을 지속시키고 번영시키는 데 공헌한 10가지 요소들에 용서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 그것은 용서가 베푸는 사람이거나 받은 사람 모두 ‘관계 증진적’인 태도와 행동들을 발전시

16) 참조: H. Fisher, *The First sex*(제일의 성), London, Random House, 1999, 8.

키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곧 그것은 한 개인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그 안에 얽여 있는 관계에 득이 되는 태도와 행동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부부들은 한 편이 다른 한 편에게 덜 공격적이 되려 하고, 더 건설적인 소통 방식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려 한다.”<sup>17)</sup>

관계 증진적 태도를 키운다는 것은, 부부와 가족의 더 큰 선익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이를 뿌리째 약화시키는 개인적인 대립들을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

### 가치들의 역할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적인 능력들은 ‘책임’이라는 더 일반적인 범주에 편입될 수 있다. 책임의 수준과 얻어진 만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부의 견고함도 커진다.<sup>18)</sup> 부부 관계에 책임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랑을 애정의 개념으로 고려하는 것을 뜻하며, 강하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그치고 마는 감정의 개념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애정은 인식과 의지 그리고 이들을 지향하는 가치들에 결합될 때 자신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사랑이 하나의 계명으로 소개되는 이유이다(요한 13,31-35 참조). 그것은 스스로 책임을 원하고, 자주 만나는 데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삶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서로 닮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엇보다 자신들 안에서 발견되고 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명령으로 주어질 수 있다. 그것은 명령법으로 표현되는 것을 경멸하지 않는다(“나를 사랑하여라!”). 그것은 평가와 느낌에 결합된 명령이고, 사랑받는 사

17) C. Regalia - G. Paleari, *Perdonare*(용서), Bologna, il Mulino, 2008, 70; 용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G. Cucci, «Il perdono, un atto difficile, ma necessario»(용서, 어렵지만 필요한 행동), in *Civ. Catt.*, 2015, I, 142-156 참조.

18) G. Levinger - D.J. Senn - B.W. Jorgensen, «Progress towards permanence in courtship. A test of the Kerckhoff-Davis hypothesis»(영원한 구애를 향한 진전. Kerckhoff-Davis 이론에 대한 검증), in *Sociometry*, 33(1970) 427-443; M.L. Clements - S.M. Stanley - H.J. Markman, «Before they said “I do”. Discriminating among marital outcomes over 13 years»(혼인서약을 하기 전에. 13년간 부부 생활의 결과에 대한 식별), 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2004), 613-626 참조.

람이 자기의 능력에 가지고 있는 만큼 수행하도록 자극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법률로 명해질 수 없는 것이다. 로젠츠바이크Rosenzweig는 섬세하게 이를 강조한다. “사랑을 명할 수 있나? ... 사랑의 계명은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를 사랑하여라.’고 말할 수 있고(사랑하는 사람은 이를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말한다. 그의 입에서는 사랑의 명령이 이상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자체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명령이 아니면 이를 나타낼 다른 표현이 없고, ...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완벽한 표현이고, 가장 순수한 사랑의 언어이다.”<sup>19)</sup>

물론 이는 일시적인 열정이나 순전히 의지적 행위에 국한된 사랑이 아닌, 통합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곧 평가와 애정, 결단, 그리고 자신의 증여까지 포함된 가장 아름답고 안정된 표현이다. 애정의 차원과 평가의 차원을 통합하는 능력은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에 깊이 참여하기 위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이며, 이루어진 선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좌절하게 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 수 있는지를 체험하면서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것이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서 언어 낼 수 있는 상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그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로써 단순히 사랑에 빠지거나 표면적인 호감을 비치는 것을 넘어서는 충실성을 드러내며, 이는 이러한 선택 안에서 시간이 지속되고 소비되는 것에 직면하면서도 이를 유지할 능력을 갖춘 충실성을 뜻한다.

사랑은 책임과 결단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것들은 몇 년이 흐르는 동안 그에게 지속된다. 더욱이 이것들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애정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일시적이지 않고 견고해야 하며, 개인적이고 유일해야 한다. 이런 애정 없이 자녀들은 자신들의 유년기를 빼앗기고, 신뢰하는 능력, 특히 아름다운 무엇을 위해 투신할 능력을 빼앗겼다고 느낀다.

자신의 그늘에서 도망칠 수 없다.

19) F. Rosenzweig, *La stella della redenzione*(구원의 별), Casale Monferrato(Al), Marietti, 1985, 189.

초기에는 많았던 친밀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부부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신호이다. 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소통하려는 경향이 없어지고, 배우자에게서 늘 더 멀어지려고 할 때 일어나는데, 종종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 비밀은 이렇게 ‘모래에 묻히게 되고’, 관계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구멍이 생기게 한다. “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대화가 가장 먼저 사라진다. 어느 사이엔가 ‘내가 사랑하는 이’가 그저 오랫동안 ‘나와 동거한 이’가 되어 버리며 단지 ‘내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되어 결국에는 ‘낯선 이’가 되고 만다”(AL 233).<sup>20)</sup>

갈등이 생길 때, 최고의 해결책은 갈라서는 것이며, 새로운 유대 관계를 시작하는 결정이라고 가끔 생각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흐름에서 알게 되는 것은, 만일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과 배우자와 맺는 부족한 관계의 모습들—리타 바이스R. Weiss는 이것을 ‘대본’,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칭한다.<sup>21)</sup>—을 살펴보지 않고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특히 부부의 역사를 죄인/피해자의 도식 안에서 읽으려는 ‘이분법적인 경향’을), 그들은 이어지는 관계들 안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많은 경우에 선택된 사람은 이전의 사람과 비슷한 성격들을 보여 준다. 유명한 인사들의 감정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 복제”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이다(스튜어트R. Stewart와 윌리스B. Willis도 그 한 예이다).<sup>22)</sup> 언급된 **유명 인사들의 평판**에서만 아니며,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전의 혼인 유대에서 찾는 데 실패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것이다.

깨진 관계를 슬퍼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재빨리 정리해 버리면, 같은 유형을 반복하게 되고, 금세 동일한 흐름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사막의 교부들이 주목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늘에서 도망칠 수 없다. 깊은 친밀감을 공유했을 때는 언제나 유대를 깨뜨리기가 어렵다. 이것은 혹시라도 태어난 자녀들이나 또는 합의해야 하는 경제적인 제반 문제들(살았던 집이나 식료품 비용 등) 때문만은 아니다. 이혼을 받

20) 참조: D. Vaughan, *Uncoupling. Turning Points in Intimate Relationships*(작을 갈라놓음. 내밀한 관계에서의 전환점들), New York, Vintage Books, 1990, 76-78.

21) R.S. Weiss, *Marital Separation*(부부의 이별), New York, Basic Books, 1975, 71-82; AL 241-242 참조.

22) 참조: R. Salemi, «Sedotti dalla moglie fotocopia»(복제된 아내에게 유혹받은 이들), in *La Stampa*, 25 marzo 2009.



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는 많은 경우 그 커플들이 혼인하지 않았고, 특히 이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불화와 내면의 고통이 계속되며 점점 더 관계의 종말을 인정하는 비극적인 결말들의 기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들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실재적 어려움은 법적인 이별에 **정서적 심리적** 이별이 거의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서적 심리적 이별은 유대의 실제 모습으로서, 배우자의 내적인 표현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며, 그에 대해서 가장 약자들, 특히 자녀들이 그 짐을 자주 지게 되며, 미래의 고통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자녀의 내면적 삶에 해를 입히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자녀에게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AL 245). 이러한 태도들을 키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벌하는 것이며, 삶에 돌아가는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이다.

배우자의 죽음조차도 자신이 찾는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의 존재는 내면에 남게 되며, 남은 자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한다. 그로부터 전혀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한편으로, 어떤 슬픔이 남게 되는데, 이는 행복한 관계를 이룬 사람은 알 수 없는 슬픔이다. 부부의 삶에서 또 다른 역설적인 면이 있다.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살았던 사람이 슬프고 갈등의 관계로 살았던 사람보다 배우자를 잃은 것을 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상실의 고통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능성들을 낭비해 버린, 다르게 살 수도 있었으리라는 탄식이 함께 올라오는 것으로 보인다.<sup>23)</sup>

### 공동체의 역할

부부 생활에서 책임 부분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서적 사고에서 의심할 것 없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의 기쁨」은 가정의 안녕을 위해 위험한 흐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부부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23) 참조: I. Yalom, *Sul lettino di Freud*(프로이드의 작은 침대에서), Vicenza, Neri Pozza, 2015, 100-101.

경향의 하나로, 책임이 공적인 차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강조한다. “핵가족은 부모, 고모(이모)와 삼촌, 사촌과 심지어 이웃을 포함한 확대 가정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확대 가정에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최소한 곁을 함께하며 보여주는 관심을 필요로 하거나 고통을 겪기에 위안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작은 등지 안에 머무르며 다른 이들을 귀찮은 위험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립은 더 이상 평화나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여 그들의 삶을 더 편협하게 만든다.”(AL 187) 책임의 바탕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것이 철회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과 충실성을 위해 자신을 투신할 능력이다. 이 경우에 선택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있다.<sup>24)</sup>

혼인의 공적 차원은 서양에서 광범위하게 저평가되었는데, 부부 생활을 본질적으로 낭만주의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이는 감정을 그 근거로 삼았다. 낭만주의적인 사랑은 당연히 혼인의 선택에서 정서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장점이 있었고, 이 선택을 경제적인 일이나 정치적 계약의 일로 변형시키려는 경향에 반대했다. 그러나 그것의 제도적인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유대는 그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에 직면하기에 너무나 약해진다. 그것을 평생 유지하기에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사랑을 이렇게 보는 시각은 위험한 환상이며, 현실에서 금방 부정된다. “관계는 일종의 건물들이며, 유지되고 보수되지 않는 건물들처럼 시간의 공격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건물이 좋은 조건들 안에서 자체로 유지되는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도 저절로 평생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관계를 성장시키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이다.”<sup>25)</sup>

24) “책임의 조건은 사람이 자신의 조건을 뒤집을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 다른 선택에 대해 명료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기는 다른 선택에 대해 기쁜 내용을 줄 것이다.” H.B. Gerard, «Basic features of commitment»(헌신의 기초적 특성), in R.P. Abelson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인지 일관성론. 근원), Chicago, Rand MacNally, 1968, 457.

25) R.J. Sternberg, «La triangolazione dell'amore»(사랑의 삼각 측량), in R.J. Sternberg - M.L. Barnes (eds), *Psicologia dell'amore*(사랑의 심리학), 161: 사회학자인 루만에 따르면, 열정과 같은 사랑의 근거에 “혼인을 피하려는 의도가 일반적이다.” N. Luhmann, *Amore come passione*(열정 같은 사랑), Milano, B. Mondadori, 2006, 99.

이 모든 것이 낭만주의 작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등장인물들은 거의 언제나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다. 죽음은 마치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에 직면해서 확실한 탈출구로 여겨진다. 감정을 이상화하는 것은 결합의 안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끝났고,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더 불행한 이들로 만들어 버렸다.

가정은 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부 자신들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제도적 차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교황 권고는 교회 공동체가 부부들 당사자들에게만 내맡기지 말기를 권고하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들 가운데 하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성실한 방법으로 혼인을 준비하려 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동반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정들의 공동체들은 여기에서 귀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갖고 있다(AL 206, 230 참조).

혼인에서 책임 부분은, 위에서 살펴본 것대로, 명령으로서 사랑의 시각에 연결되어 있다. 이 역설 안에, 결정적인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방 정신세계의 불균형을 고쳐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도움은 유럽의 문화와 다른 문화들에서 이를 수 있는데, 다른 문화들에서는 혼인이 책임의 결실이며, 우리가 투신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이상이다. 이는 출신 가정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지는데, 그 가정들은 젊은 부부에게 간섭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젊은 부부는 결국 자신들의 부모들에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배우고,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 직면하는 것을 배웠다.<sup>26)</sup>

어느 인도 기혼 여성의 증언을 여기 옮긴다. 이는 서양의 정신세계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글에서 수차례 떠오른 소중한 진리를 드러낸다. 책임은 관계에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낳을 수 있고, 부부에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만족감을 체험하게 해 준다. “우리는 우리의 혼인을 혼인 서약에 제시된 책임에 바탕을 두고 있지,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우리의 혼인 생활이 점점 진전되

26) 아마도 혼인을 더 잘 준비하게 되는 이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그리스도인 혼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운 이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인 혼인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조건 없이 선택하여 그 결정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인한 부부들이 사랑을 키워 나가고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목 활동은 소중한 도움이 된다. 이는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의 혼인 생활을 준비하게 하기 때문이다(AL 208, 213 참조).

면서, 감정들도 함께 발전한다. 어떤 곳에서는 혼인이 감정들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합된 혼인을 지탱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sup>27)</sup>

---

27) T. D’Paula, «Il matrimonio nella cultura indiana. Stato del Karnataka»(인도 문화에서의 혼인. Karnataka 주), in J. Kowal - M. Kovač (eds), *Matrimonio e famiglia in una società multireligiosa e multiculturale*(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의 혼인과 가정), Roma, Gregorian & Biblical Press, 2012, 300.

## 스웨덴 사목방문을 앞둔 교종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INTERVISTA A PAPA FRANCESCO.

In occasione del viaggio apostolico in Svezia<sup>1)</sup>

울프 욘손 신부(예수회, 『표징Signum』 발행인)

최현순 테레사 옮김(교의신학 박사)

예수회 유럽 문화잡지 편집장 모임 기간에, 나는 『치빌타 카톨리카』 편집장인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에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즉, 2016년 10월 31일,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교회일치적 공동기념제에 참여하기 위해 스웨덴을 방문하는 교종 프란치스코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목방문 동안 교종께서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에 대하여 스웨덴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터뷰라고 생각했다. 스웨덴 예수회 문화잡지 『표징 Signum』의 편집장으로서 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에 충만하게 부합한다고 보았다.

교회일치는—종교인들과 그리고 신앙이 없는 이들과도—교종의 핵심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다. 교종은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종 자신이 화해의 사람이다. 교종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것에 대한 장애물이나 장벽이든 그것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교종께서 스웨덴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분의 이러한 비전이 많은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건드리기를 바랐고, 인터뷰는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스파다로 신부에게 말했고, 8월 말까지 우리는 함께 이것에 대해 성찰했다. 우리는 교종께 인터뷰를 제안하기로, 그래서 교종께서 그 수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종께서는 이에 대하여 얼마간 숙고하셨다. 마침내 긍정적인 답을 주셨고, 9월 24일 오후 늦게 산타 마르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셨다.

---

1) *La Civiltà Cattolica* 2016 IV 313-324 | 3994 (26 novembre 2016)

그날은 날씨도 정말 좋았고 하늘은 쾌청했다. 스파다로 신부와 함께 자동차로 혼잡한 로마 시내를 지나면서 나는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만족했다. 도착해서 기다릴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즉시 교종께서 사용하시는 방으로 올라오도록 안내를 받았다. 승강기가 열렸을 때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스위스 근위병을 보았다. 교종께서 다른 사람들과 스페인어로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교종을 보지는 못했다. 잠시 후 교종은 두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나타나셨다. 교종은 나와 스파다로 신부에게 미소로써 인사하셨고, 당신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도록 하셨다. 교종은 아마도 얼마 전에 도착하신 듯했다.

나는 이 단순하고 따뜻한 가족 같은 환대에 놀랐다. 이미 현관에서 교종께서 하루 종일 쉬지 못하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루가 끝나가는 이 시간에 매우 지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마치 휴식이라도 취한 듯 그토록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에 나는 매우 놀랐다.

당신 방에 들어서셔서 교종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스파다로 신부도 내 맞은편에 앉았으며, 교종께서는 우리 사이에 앉으셨다. 나는 유창하지는 않아도 알아듣고 간단히 대화할 수는 있는 이탈리아어로 나를 소개하고 싶었다. 몇 마디 말을 나눈 후에, 녹음기를 켜고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교종께 하고 싶었고 또 준비했던 몇 가지 질문들을 영어로 하면 스파다로 신부가 통역했지만, 우리의 대화는 곧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어떤 인위적인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특히 대화는 솔직하고 직접적이었으며, 돌려서 말한다거나, 대단한 지도자들이나 존경받는 인물들을 만날 때의 전형적인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 나는 교종 프란치스코가 대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의심도 갖지 않는다. 때때로 응답하시기 전에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 대답은 진중하게 심사숙고한 의미를 전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겁거나 슬프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있는 동안 교종은 유머감각을 매우 자주 드러냈다.

\* \* \*

교종 성하, 10월 31일에 성하께서는 세계 루터교 연합과 교황청 그리스도교 일치 평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 기념제에 참여하시기 위해 룬트Lund

와 말뫼Malmö를 방문하십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성하께서 희망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 한 마디 말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즉 ‘가까이 다가가기’입니다. 나의 희망과 기대는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거리라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서로 멀어질 때, 우리는 서로 만나는 대신에 우리 자신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각자가 개별적 단자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초월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분열로 인해 아파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스웨덴에 살고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루터파 신자들이 다소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하께서는 예전에 그들을 직접 만날 방도가 있으셨습니까?

네, 충분하게요. 내가 처음으로 루터파 교회에 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에스메랄다 거리calle Esmeralda에 있는, 그들의 아르헨티나 본부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때 나는 17살이었습니다. 그날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아헬 바흐만Axel Bachmann이라는 내 직장 동료가 결혼했거든요. 그는 루터파 신학자인 메르세데스 가르시아 바흐만Mercedes Garcia Bachmann의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어머니 잉그리드Ingrid도 내가 일하던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루터교 전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더 강한 경험이었는데요. 우리 예수회원들은 산 미겔San Miguel에 신학교를 가지고 있고, 나도 거기에서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10킬로미터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루터파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의 학장은 레스코 벨라Leskó Béla라는 헝가리 사람이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매우 진실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영성신학과 교수로 있었던 나는 루터파 신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였던 스웨덴 사람 앤더스 루스Anders Ruuth를 초대해서 함께 영성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때에 내 영혼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그를 아주

많이 신뢰했고 그에게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시 그는 나를 아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질에 초대되었다가—그분은 포르투갈어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70년대 말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하느님 나라의 보편적 교회Chiesa universal del Regno di Dio”에 대한 교수취득 학위논문을 발간했습니다. 스웨덴어로 썼지만 그 중 한 장(章)은 영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보냈고 나는 영어로 쓴 그 장을 읽었는데, 정말 보석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요... 얼마 후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좌주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당시 윽살라Uppsala의 수석 대주교arcivecovo primate가 주교관으로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콰라시노Quarracino 추기경은 그때 부재중이었고요. 그는 나를 아소파르도 거리calle Azopardo,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글레시아 노르디카Iglesia Nórdica에서 있었던 그들의 미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전에는 “스웨덴 교회Chiesa svedese”라고 불리던 교회였습니다. 나는 수석 대주교에게 앤더스 루스에 대해 말했지요. 그 후 앤더스 루스는 결혼식 주례를 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한 번 더 왔습니다. 그 기회에 우리는 다시 만났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중 한 명은 음악가였는데,—다른 하나는 의사입니다—어느 날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루터파 사람들과 내가 맺은 또 다른 관계는 덴마크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앨버트 앤더슨Albert Anderson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강론에 두 번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례에서였는데, 그 경우는 매우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성체와 관련하여 당혹스러운 기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분은 미사를 거행하지 않고 세례식만 했습니다. 이어서 그들 젊은이들과의 모임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목사님과 나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아주 거센 토론을 했는데, 그분이 미국에 계실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종교 문제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나의 발언 때문에 아주 심하게 나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를 꾸짖었다는 것도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돌아왔을 때, 나는 사실 그때 내가 표현했던 방식이 약간 공격적이었다는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 후 루터연합 복음 교회 Iglesia Evangélica Luterana Unidad의 아르헨티나인 목사인 다비드 칼보David Calvo와 매



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분 또한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월 말 거행되는 ‘성경의 날Giorna della Bibbia’에 에스메랄다 거리의, 내가 젊었을 때 갔었던 그 첫 번째 교회에 다시 갔습니다. 거기에서 메르세데스 가르시아 바흐만을 만났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주교로 있었을 때 루터파 사람들과 직분상 가졌던 마지막 만남입니다. 반면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개별 루터파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앤더스 루스입니다. 많은 애정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기억합니다. 스웨덴 교회의 수석 대주교가 이곳으로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우리 둘 사이의 우정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2015년 5월 안체 작클렌Antje Jackelén 대주교가 이곳 바티칸을 공식방문을 했을 때 대단히 아름다운 담화를 했습니다. 나는 마리아 엘리사벳 헤젤블라트Maria Elisabethe Heeselblad 시성식 때에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의 남편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후 교종으로서, 로마에 있는 루터파 교회에 강론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들은 매우 감동적이었는데, 상호 영성체에 대한 어떤 아이와 부인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심오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매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교회일치적 대화에서 서로 다른 공동체들은 각자의 전통들로서 서로를 더 풍요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루터적 전통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즉 ‘개혁’과 ‘성경’입니다.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루터의 개혁은 교회로서는 어려운 시기에 행해진 개혁의 한 제스처였습니다. 루터는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치료제를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제스처는—정치적 상황 등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영지에 그의 종교*cuus regio eius religio*”라는 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전체 교회의 개혁의 한 ‘과정’이 아니라 분리의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semper reformanda*”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은 근본적인 것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곧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의 손 안에

놓는 데에 있어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혁과 성경은 루터적 전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콘클라베가 열리기 전 총회(Congregazioni Generali)에서 우리가 얼마나 개혁의 요청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했었는지가 지금 생각납니다.

교종 성하 전에는 오직 한 분의 교종, 곧 요한 바오로 2세가 1989년에 스웨덴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는 교회일치적 열광의 시대였고, 가톨릭과 루터파 사이에 일치에 대한 깊은 염원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일치 운동은 그 생기를 잃은 것 같고, 새로운 장애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성하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증진하기 위해 어떤 보다 나은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대화하고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신학자들의 몫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학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화에 대한 교회일치적인 위대한 문헌과 함께 이 길이 도달한 결과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분명히 몇 가지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걸음에 이어 앞으로 더 전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가 이야기 했던 것, 즉 바오로 6세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토론하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내가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는 그것이 정말 있었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쉽지 않다 하더라도 신학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열광의 방향을 공동 기도와 자비로운 행위 쪽으로, 즉 병자들, 가난한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함께 도와주는 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수준 높고 효과적인 대화의 형태입니다. 교육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파별로 나누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의 준거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적 영역에서 개종주의를 펼친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 그 준거입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교회는 개종주의로서가 아니라 매력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종주의는 죄스러

운 처신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함께 말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일치 안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것은 적, 곧 사탄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살해당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 루터파나 칼뱅파, 성공회 신자나 가톨릭 신자, 정교회 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의 교회일치가 있습니다.

함부르크 반츠Wandsbek의 상트 요제프Sankt Joseph 성당의 본당 신부와 함께 살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본당 신부는 히틀러가 교리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처형한 순교자들의 시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는데, 가톨릭 신자 두 사람이 먼저 처형된 후 루터파 목사도 같은 이유로 단죄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피가 섞였지요. 본당 신부는 그 목사님을 제외한 채 두 가톨릭 신자들만의 시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피는 서로 섞였던 것입니다. 1964년 우간다에서 바오로 6세께서 하셨던 강론도 생각납니다. 그 강론에서 교종께서는 가톨릭 신자들과 성공회 신자들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우간다를 방문했을 때 나 또한 이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정교회 신자들, 콥트교 신자들이 리비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피의 교회일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며, 피의 교회일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종교라는 옷을 입은 테러리즘의 확산입니다. 아시시에서의 만남은 종교간 대화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었습니다. 성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산트에지디오Sant'Egidio와 접촉했던 모든 종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산트에지디오가 접촉했던 사람들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날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만남은 매우 존경할 만했고 혼합주의는 없었습니다. 모두 함께 평화에 대해 말했고 평화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 강력하게 말했으며, 종교들은 참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성모독이고, 사탄의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니차Nizza에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희생자, 부상자들, 그

리고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 대학살을 저지른 미치광이는 신의 이름으로 한다고 믿으면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불쌍한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를 찾으려 했던 미친 사람이 있었다고 애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시에서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하께서는 최근에 또 다른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해, 즉 수다떠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네, 근절시키기 어려운 악습인 내부적 및 땅속에 숨은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나는 험담을 하거나 수다를 떠는 악습을 테러리즘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영혼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깊은 회심을 필요로 하는 강력한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이 테러리즘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단순하게 혀를 사용함으로써도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같이 공개적으로 하는 싸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흉하게 숨겨진 테러리즘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폭탄’처럼 말을 던짐으로써 아주 큰 악을 저지릅니다. 이 테러리즘의 뿌리는 원죄 안에 있고 범죄의 한 형태입니다. 다른 이들을 파괴시키면서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깊은 회심이 필요하며, 이 점에 대하여 아주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칼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만, 혀는 칼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사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악의 불꽃을 키울 수 있고 우리의 생명 전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혀는 치명적 독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테러리즘을 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하나의 축복일 수 있지만, 또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종종 세상에서 종교집단 사이의 충돌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 좀 더 평화로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종교에 기초한 이상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결합된 이상들이 있습니다. 즉 돈의 이상, 적개심의 이상, 공간의 영토성에 대한 욕심

인, 시간에 우선하는 공간의 이상 등입니다. 공간, 지배권을 정복하려는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나쁜 바이러스처럼 종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상은 종교의 끝장이자, 잘못된 종교성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의 내재적 초월성una trascendenza immanente', 즉 하나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참된 종교는 절대자를 향하여 초월하려는 인간 능력의 발전입니다. 종교적 현상은 초월적인 것이고 그것은 진리, 아름다움, 선, 그리고 일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이 없다면 초월도 없고 참된 종교도 없으며, 이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초월의 개방성은 테러리즘의 원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방성은 항상 진리, 아름다움, 선, 그리고 일치를 추구하는 것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하께서는 종종 중동지역의 몇몇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인간적인 어떤 발전의 희망이 있을까요?

나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매우 어려운 시험들에 대해 읽을 때, 혹은 순교자들이 겪은 시험들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 백성을 도우러 오셨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약성경 마카베오서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곱 아들이 살해된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혹은 엘르아자르의 순교를 기억해 봅시다. 분명히 순교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성 폴리카르포를, 그리고 그의 체포와 죽음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스미르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억해 봅시다. 네, 지금 이 순간 중동은 순교자의 땅입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는 순교자, 순교를 당한 시리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개인적인 기억 하나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레스보Lesbo에서 두 아이를 둔 아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 아내를 무척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슬람교 신자였고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왔을 때 그들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십자가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테러리스트들은 남편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학살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

니다.” 네, 그녀는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날부터 늘 알고 있습니다.

성하께서는 1,2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비유럽인으로서 교종이 되신 분이고, 종종 세상의 ‘변두리’로 여겨지는 지역에서의 교회의 삶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성하의 생각에 가톨릭교회는 향후 20년 어디에서 가장 활기찬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유럽 교회들이 미래의 가톨릭교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은 공간, 지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나는 공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중심으로부터보다는 항상 변두리로부터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적 공동체의 활기는 공간, 지리가 아니라 영spirit에 좌우됩니다. 젊은 교회들이 보다 더 생기 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나이든 교회들이 있으며 조금은 잠든 교회들, 그래서 단지 자신들의 공간을 보존하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영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차서 경직된 방식으로 하나의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의 교회는 정말로 생기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두리가 가진 생기는 영에 여지를 더 많이 줍니다. 교회의 못된 늪의 효과들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3장을 읽는 것이 좋은데, 이 성경에서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시를 본다고 말합니다. 노인들의 꿈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환시를 볼, 미래를 새롭게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들은 가끔 프로그램들과 프로그램화에 갇혀버립니다. 나는 그것들을 허용합니다.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러나 조직도들 안에 많은 희망을 둔다는 것이 내게는 힘겨운 일입니다. 영은 우리를 고무하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영은 꿈꾸는 능력,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에 자리합니다. 내게 이것은 전체 교회를 위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내게 있어서 교회를 위하여 이 순간 하나의 도전, 그 생기 있음의 능력에 대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 때문에 크라쿠프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청년대회에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노인들과 대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젊은 교회는 젊은이들이 노인들과 대화하는 만큼, 그리고 노인들이 위대한 것을 꿈꾸는 그만큼 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공기가 없어집니다.

성하의 스웨덴 방문은 세상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 중 하나를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하느님을 믿지 않으며 종교는 공적인 생활과 사회에서 상당히 빈약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께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잃는다고 보십니까?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성의 능력을 적합하게 발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초월성에의 길은 하느님께 자리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는 작은 발걸음들, 심지어 무신론자로서나 불가지론자로서의 발걸음까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문제는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감히는, 그래서 근원적 초월성의 필요 없이 자기 자신 안에 감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초월으로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말이나 담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초월성을 사는 사람은 눈에 드러납니다. 즉 그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크라쿠프에서 몇몇 젊은이들과 점심식사를 할 때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그를 회개시키나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네가 해야 할 것들 중 마지막 일이다. 먼저 행동해라, 살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삶과 네가 하는 증거를 보고 아마도 너에게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물을 것이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하느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어떤 증거하는 삶의 고민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복지benessere와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민은 삶의 운택함 속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무신론, 즉 초월에 대한 폐쇄성에 대항해서 오직 기도하고 증거하는 것만이 가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가톨릭신자들은 아주 적은 소수이고 더욱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하께서는 그 둘 중 몇몇을 11월 1일 말뫼Malmö에서 봉헌될 미사에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스웨덴 같은 문화 안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각자 자신의 신앙을 살 수 있고 개방적이고 교회일치적 정신으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에서 건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톨릭적이지도 교파적일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적”과 “교파적”이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 나는 이 여행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미사를 거행하리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일치적 증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후 나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이, 이웃 나라에서도 오게 될 가톨릭 신자 양떼의 목자인 나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공동체의 열렬한 요청에 응답해서 여행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고 미사를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계획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일치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장소와 다른 날에 미사를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일치적 만남은 일치의 정신에 따라 그 깊은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모든 성인의 날에도 스웨덴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이 날은 로마에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하께서는 예수회원입니다. 1879년부터 예수회원들은 스웨덴에서 본당 활동, 영신 수련 지도, 『표징』 잡지 등의 사도직을 해왔고, 최근 15년 동안은 뉴만 연구소 Instituto universitario “Newman” 덕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예수회원들의 사도직의 과제와 가치를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겠습니까?

스웨덴에서 예수회원들의 첫 번째 과제는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이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과의 대화를 어찌 되었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즉 말하고, 공유하고, 이해하고 곁에 있어 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일치적 대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웨덴 예수회원들을 위한 모델은 성 베드로 파브르일 것인데, 그분은 항상 선하고 개방된 영에 의해 안내되어 걸었습니다. 예수회원들



은 정적인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역동적인 구조이어야 합니다.

호세 마리오 베르골료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는 나를 자비로이 바라보고 나를 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는 항상 이 원리와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 지상에서의 나의 삶에 의미를 주었고, 미래의 삶을 위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비로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취하시어 길 위에 놓으셨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은총을 주셨는데, 곧 부끄러움의 은총입니다. 나의 영적 삶은 모두 에제키엘서 16장에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네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부끄러움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만 당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온갖 교만과 허영을 가로막으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웨덴 여행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것은 단순합니다. 가서 함께 걷자. 경직된 전망 안에 갇혀 있지 말자,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혁의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 \* \*

교종 성하와 스파다로 신부, 그리고 나는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담화를 나누었다. 끝으로 교종께서는 우리를 승강기까지 동반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다. 교종께서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는 동안 문이 닫혔다.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밖은 어두웠다. 저녁식사를 위해 자동차로 치빌타 카톨릭 공동체로 돌아오는 동안, 베드로 대성당의 돔이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